

성명	박혜윤	수험기간	2023.03~2025.07.
학교	카이스트	전공	전기및전자공학부
키워드	최연소 기득 민소고득점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제62회 변리사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박혜윤입니다. 2023년 3월에 진입해 기득으로 합격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정말 많은 합격수기를 읽으며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합격해 수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 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공부 방법도, 부족한 부분도 다르기에 제 수기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것을 극복한 방법이 자신만의 돌파구를 찾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차 때까지만 해도 합격해서 수기 쓰는 상상을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의 공부 방법이나 이 시험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일 자체가 조심스럽습니다. 기득을 지나며 이 어려운 시험에 대해 무엇인가를 단정하거나 안다고 말하는 것조차 오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남짓의 수험기간을 지나며 고민한 것이 전부이기에 시야가 충분히 넓지 않습니다. 혹시 제 글이 온 좋은 합격자의 치기 어린 판단으로 보일지라도, 하나의 사례로 너그럽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기별 공부 방법

-1차-

3월에 전업으로 진입하여 대부분의 강의는 개강 시기에 맞추어 들었습니다. 모두 인강으로 수강하였고 복습은 전혀 하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일찍 진입하여 시간이 넉넉한 편이었고 공부 습관도 잡혀있지 않아 12월까지의 주 6일 하루 7~8시간 공부했습니다. 1월부터는 마음이 급해져서 하루 9~10시간 정도 공부하였습니다. 계속 혼자 공부해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에 11월부터는 위치 파악을 위해 학원 모의고사를 응시하였습니다. 10월까지의 과외를 병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공부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각 과목 기본강의가 끝난 뒤 7~10월에 동차 합격의 꿈을 안고 민사소송법 기본강의와 사례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저는 이 역시도 복습하지 않고 듣기만 했기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공부했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과학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민소법 강의를 미리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업재산권법 97.5점, 민법개론 92.5점, 자연과학개론 75점을 받아 평균 88.33점으로 1차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동차-

	3월	4월	5월	6월
민사소송법	이창한 심화강의	이창한 실전A	이창한 기초	이창한 실전B
특허법	박형준 기초 GS+		박형준 실전A, B	
상표법	한경훈 기초 GS+		한경훈 실전B	
저작권법		기본강의	기초	실전

지방에 거주하였으나 GS는 전부 현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올라가서 일요일 밤늦게 내려오는 일정이었습니다. 3GS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한 시가 넘었지만, 월요일 오전에도 평소처럼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동차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1차 때 민사소송법 기본, 사례를 들어서 3월에 심화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하루에 6강씩 들어서 3월 20일 이전에 완강 후 4월 실전 A를 대비하기 위해 나름대로 기본서 회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목인지 감도 잡지 못했기에 실전 A에서는 책을 보고도 쓰기 어려웠습니다. 6월 실전 B에서는 책은 보지 않았지만 30~50% 정도의 성적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워서 쓴다는 느낌이 강했고, 결국 동차 기간 동안 민사소송법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특허, 상표는 박형준, 한경훈 변리사님의 동차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랐고 특허는 5월에 실전 A를 추가로 혼자 썼습니다. 4월까지의 책을 보고 썼고 5월부터는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실전에서 10~50%의 성적을 받았고 기복이 심했습니다.

복습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GS 직후에는 복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5월 말부터 전에 풀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여전히 회독 방법을 몰랐고 암기만 하였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그게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공부량에 비해 쌓이는 것이 너무 없다고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답을 많이 틀렸고 특허법 48.33점, 민사소송법 58.66점, 상표법 55점, 저작권법 54점을 받아 1.2점 차이로 불합격하였습니다.

-기득-

	11월	12월	1월	2월
민사소송법	이창한 심화강의			
특허법	박형준 기본강의		박형준 사례강의(상)	박형준 사례강의(하)
상표법		기본이론강의		
	3월	4월	5월	6월
민사소송법	실전A	이창한 실전A	실전B	이창한 실전B
특허법	박형준 실전A	박형준 판례강의		박형준 실전B
상표법		실전A	실전B	실전B2
저작권법				실전

동차 시험을 마치고 복학하여 15학점을 수강했습니다. 발표 전까지는 공부가 잘되지 않아 민소 사례집을 2회독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동차 결과를 보고 저의 공부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똑같이 하면 내년에는 소수점 탈을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도 매일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출제자는 어떤 답안을 원하는지, 법학을 이해한다는 건 뭔지, 공학 과목과 법 과목은 어떻게 같고 다른지 등을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며 어떻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지 등을 열심히 물어보며 저의 생각하는 방식, 글 읽는 방법 등을 완전히 바꾸어갔습니다. 그전까지는 막무가내로 공부했는데 처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를 제삼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기득 때에는 불운이 따라도 합격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실력을 갖추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2월 말 종강 이전에는 강의 수강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1, 2월에는 기본서 암기 및 사례집 풀이를 하면서 특허 사례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항상 하루에 민소-특허-상표 순서로 공부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상표 공부량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5월을 제외하고 GS는 전부 온라인으로 수강했습니다. 이동시간과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실전처럼 쓸 의지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수강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강평을 곧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 올라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일에 들어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보통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배속으로 들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느라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여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특허는 사례강의를 수강해서 3월 GS부터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은 3월 GS가 정말 어렵게 느껴져서 좌절했습니다. 이것은 1, 2월 내내 얇은 책을 외우다가 3월 말에 통합으로 다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표는 공부량이 현저히 적음에도 4월 GS부터 성적이 잘 나왔고, 다소 방심해서 공부를 적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4월부터는 대부분의 GS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받았지만 합격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GS 성적이 잘 나오다가도 불합격하는 사례가 많고, 예전에 풀어봤거나 방금 봐서 잘 쓰는 것을 실력이라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4~6월에 사례스터디를 하며 주 2회 1시간 쓰기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일에는 전혀 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서

와 사례집 등만 봐도 평일에는 이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알면 쓰고 모르면 못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저는 기득 기간 내내 아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작권법은 동차가 끝난 이후로 전혀 보지 않다가 5월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투자해서 기본서를 읽었고 그마저도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3법 평균이 부족해서 불합격하는 것보다 저작권법 50점을 못 넘겨서 불합격하는게 훨씬 더 괴로울 것이라는 생각에 6월부터는 하루 1시간 정도는 투자했습니다. 다만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에는 전혀 보지 않았고 밥 먹는 시간이나 자기 직전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63.66점, 특허법 52점, 상표법 51.33점, 저작권법 70점을 받아 평균 55.66점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과목별 공부 방법 - 1차 공부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92.5점	97.5점	75점

-민법- <점수: 92.5점>

【강의 및 교재】

강의: 기본강의, 중급강의, 객관식 강의, 최신판례 강의

교재: 민법공방, 민법공방 연습

【회독 방법】

당시에는 이해와 정독을 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기본서 회독 시 모든 글을 통암기하듯이 읽었습니다. 문장을 읽고 머릿속으로 떠올려보고 그대로 떠올릴 수 있으면 넘어가는 식으로 회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수십 회독을 했지만, 회독 주기가 잘 단축되지 않았고 지식이 체계적으로 쌓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익숙해져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할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민법 공방 연습은 답을 가리고 폰 다음 답을 맞히면 넘어가고 틀린 문제는 표시하는 식으로 반복해서 회독하였습니다.

틀리더라도 기본서를 찾아보거나 고민해보지는 않았고 그냥 답만 확인하고 넘어갔습니다. 한번은 모든 문제를 회독하고 한번은 틀린 것만 보고 하는 식으로 계속 형식을 바꿔가며 회독했습니다. 결국에는 문제와 답 자체를 외워서 풀게 되었지만 시험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어서 그렇게 공부해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험 전날 1회독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험 4일 전부터 기본서를 3일간 천천히 1회독하면서 시험 전날 다시 볼 부분에 포스트잇을 붙였고 시험 전날에는 그것만 보는 식으로 간신히 전체를 훑었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에는 민법 공방 연습의 5번 이상 틀린 문제들을 1회독 하였습니다.

-산업재산권법- <점수: 97.5점>

【특허법】점수: 20/20

강의: 기본강의, 조문강의, 객관식 강의

교재: 기본서, 기출객관식, 판례집, 조문집, 실전 모의고사, 산재법 조문 비교표

민법 기본강의 완강 후 기본강의를 듣고 기본서를 회독했습니다. 책이 너무 두껍기도 하고 강의 듣고 복습을 하지 않아 습득이 더뎠습니다. 기본서와 같은 시리즈의 요약서가 출간될 때까지 기본서를 5회독 정도밖에 하지 못했고, 기본서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는데 단권화용 요약서로 넘어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험 직전까지 두꺼운 기본서를 주교재로 하며, 판례집, 조문, 기출을 병행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밑줄을 긋거나 필기를 한 것이 별로 없어서 기본서를 읽으면서 강약 조절을 하기 어려웠고 시험에 안 나올 내용들까지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봤던 기출객관식은 해설이 부실한 편이었는데 저는 객관식을 풀 때 왜 이게 틀렸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선지와 정답 자체를 외우는 식으로 학습했기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기본서를 봤다가는 지엽적인 것만 보고 갈 것 같아서 판례집, 기출에서 표시해둔 부분과 조문을 각 1회독 했습니다. 추가로, 당시 기출객관식 교재에는 기출만 수록되어있어서 새로운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12회의 모의고사가 수록된 실전 모의고사가 난도가 높아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표법】점수: 10/10

강의: 기본강의, 핵심이론정리강의

교재: 상표법 통합 기본서, 핵심이론정리, 기출문제집, 객관식, 산재법 조문 비교표

김영남 변리사님의 기본강의와 핵심이론정리 강의를 수강하였고 기본서를 5회독 정도 한 뒤에는 계속 100페이지 남짓의 핵심이론정리만을 회독하였습니다. 해당 교재는 1차를 효율적으로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서도 2차 겸용으로 간결하게 쓰인 책이라 특허법보다는 접근이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2차 상표법을 대비하는데는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표법이 어떤 과목인지 파악도 하지 못한 채로 핵심이론정리만을 외웠고, 동차 때 상표에 대한 기본기가 전혀 없어서 고생했습니다.

당시에는 김영남 변리사님께서 산재법 조문 비교표를 무료로 배포해주셨는데 이것이 산재법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책을 뒤적이면서 비교하는 것을 귀찮아했기에 한눈에 세 과목을 다 볼 수 있고 차이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해당 자료를 회독하며 조문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 지엽적인 부분까지 암기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점수: 9/10

강의: 기본강의, 최종정리강의

교재: 기본서, 진도별 기출문제&모의고사 문제집, 최종정리강의 교재, 산재법 조문 비교표

김웅 변리사님의 기본강의와 최종정리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기본서와 문제집을 반복해서 회독하다가 최종정리강의 수강 이후에는 최종정리강의 교재와 문제집을 주로 봤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양도 적고 공부도 덜 했던 과목이며 지금은 오래되어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많은 수험생이 선택하는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기출을 풀면 무난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과학개론- <점수: 75점>

【물리】

~교재: 기본서

강의는 듣지 않고 문제만 풀었습니다. 개념과 연습문제, 약 10년 치 정도의 기출이 수록된 기본서 성격의 교재를 3번 정도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시험 직전에 스퍼트를 한다고 잠을 줄여서 당일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법 과목을 풀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정말 졸렸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리 문제를 푸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화학을 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단순 계산 실수도 많이 해서 시험 직후 물리 때문에 자연과학이 과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개 맞았습니다.

【화학】

교재: 기본서, 객관식

강의는 듣지 않고 문제만 풀었습니다. 화학은 물리에 비해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유기화학 부분은 전혀 몰라서 물리보다는 어려웠습니다. 개념이 간략하게 나와 있고 단원별로 기출이 수록된 기본서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시험에 임박하여 문제를 더 풀어야 할 것 같아서 같은 시리즈의 객관식도 사서 풀어보았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문제가 어려웠고 시간이 부족했는데 다행히 제대로 푼 문제는 다 맞아서 5개 맞았습니다.

【생물】

교재: 요약서, 객관식 문제집

강의: 중급강의

생물은 고등학생 때 공부한 것이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처음에 500페이지 남짓의 기본서를 구매하였는데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이후 400페이지 정도 되는 요약서로 회독하기 위해서 해당 교재로 이루어지는 중급 강의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정말 많이 좋아서 제대로 들은 부분은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재 자체도 처음에는 난해하게 느껴졌고 강의 수강 후에도 회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간이 흘러 객관식을 풀게 되었습니다. 해당 객관식 교재는 문제 옆에 관련 개념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문제를 풀면서 개념도 한꺼번에 공부하기에 좋았습니다. 객관식을 여러 번 풀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은 뒤에 다시 요약서로 돌아가 회독하였고 그제야 책을 비교적 수월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쉽게 나와서 10개를 다 맞았습니다.

【지구과학】

교재: High End 지구과학

강의: 기본강의

박준희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한 권의 책에 문제와 개념이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념을 몇 번 회독하고 연습문제와 기출을 풀었습니다. 암기 위주의 파트를 제외하고는 책에 있는 개념을 자세히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별로 열심히 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다가, 시험이 임박하자 갑자기 불안해져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시험이 다소 어렵게 나왔고, 8개 맞았습니다.

-기타-**【시간 관리】**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간 관리를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법 과목은 공부량이 충분하다면 시간 관리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특별히 시간을 의식하지 않았고, 문제가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어 실제 시험에서도 시간이 넉넉했습니다.

자연과학은 생물 → 지구과학 → 물리 → 화학 순서로 풀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생물·지구과학 5~10분, 물리 20분 내외, 남은 시간을 화학에 집중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다만 실제 시험에서는 물리에 20분을 넘겨 사용했고, 그 여파로 화학에서 시간이 부족해 풀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연과학은 사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공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63.66점	52점	51.33점	70점

-민사소송법- <점수: 58.33->63.66>

【강의 및 교재】

■ 강의: 기본강의, 사례강의, 심화강의

■ 교재

주교재: 통합 민사소송법

부교재: 통합 사례집, 통합 기출문제 핸드북, 타 사례집 2권, 요약서

【동차 기간】

1차 기간에 기본강의, 사례강의를 수강하였기에 3월에 심화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순전히 들었던 것을 한 번 더 듣기는 싫고 혼자서는 회독을 안 할 것 같아서 한 선택이었습니다. 강의 진도에 맞춰서 1회독을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결국 기득 시작할 때 심화강의를 한 번 더 듣게 되었고 같은 내용임에도 그때는 훨씬 얻는 것이 많았습니다.

4월부터는 GS를 수강하였고 평일에는 기본서와 사례집을 회독하였습니다. 기본서는 하루에 80p를 목표로 무작정 외우면서 읽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읽고 눈을 감고 해당 페이지에 있는 판례 등을 그대로 떠올릴 수 있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식으로 회독했습니다. 이해를 전혀 하지 않고 그림을 외우듯이 외웠기에, 사례집도 스스로 생각해서 풀 수 없었고 문제를 읽고 답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회독했습니다. 암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 정도 답안을 채울 수는 있었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읽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기억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본서를 다 소화하지 못해 시험 직전에는 사례집과 GS를 위주로 회독했고 시험 전날에도 사례집을 1회독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통합 민사소송법, 통합 사례집 이외에 다른 책은 보지 못했습니다.

논리 구조 자체를 생각해본 적이 없으므로 목차를 잡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스스로 잡은 목차가 강사 목차와 달라서 막막했다는 합격 수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본서, 사례집, GS 목차를 외워서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그냥 목차를 잡지 못했습니다. 6월이 되도록 실력이 계단식으로 오르는 순간이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득 기간】

동차 때 민사소송법 점수가 저조했기에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차 때 외운 것은 다 잊어버렸고, 여전히 목차를 잡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간 이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깨달은 상태였기에 심화강의를 다시 들으며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고 제가 택했던 방법은 사실관계 하나하나가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공감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각 판례와 기본서의 구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마음을 열고 그 취지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세세한 암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위치설정이 전혀 안 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월부터는 무작정 얇은 요약서를 통암기 했습니다. 내용을 전부 세부적으로 외우지는 못했고 목차를 위주로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요약서 목차들을 이용해 작성된 기출사례집을 보면서 목차 잡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러자 사례집 목차를 이전보다는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GS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요약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약서는 답안지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술되어 있지만 사실관계가 나와있지 않고, 추가해야 하는 판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심화강의 들은 이후 한 번도 펼쳐

보지 않았던 통합을 꺼내서 급하게 목차에 형광펜을 칠한 것이 3월 말이었습니다.

요약서를 통해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 위치설정을 한 뒤에 다시 통합을 보자 이제야 강약 조절을 하고 답안지 목차구성을 고민하면서 통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통합만을 반복 회독했는데 동차 때는 각 페이지를 그림처럼 외우고 넘어가는 것을 회독이라 여겼다면 기득 때는 읽고,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고, 전체에서의 위치나 다른 부분과의 연관성을 고민한 뒤에, 암기해서 그대로 말할 수 있으면 넘어가는 식으로 회독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전체적인 체계가 머릿속에 생기자 통합의 가독성이나 분량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합에는 계속 까먹거나 이해가 안 되는 지엽적인 내용들만 표시해두었기에 시험 전날에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보기 위해 요약서를 1회독 하였습니다.

민소는 사례집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상표보다는 수학 같은 느낌이 강한 과목이고, 시험에서 답이 틀리면 점수가 여지없이 깎이는 과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 간 답이 갈리는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실수하지 않고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사례를 풀 때는 단순히 문제를 읽고 목차를 잡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답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다른 내용을 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답안이 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것을 바라고 낸 문제이며 왜 저자는 출제의도가 이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치열하게 고민해보았습니다. 각 사례집에는 겹치는 문제도 많았지만, 같은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어떻게 목차를 구성했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었기에 여러 권을 풀었습니다. 핸드북은 기출문제에 적응하기 위해 풀었습니다. 사례집을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차를 손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답안의 전체적인 구성(어떤 흐름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분량은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과 대목차 정도를 머릿속에 그리는 식으로 회독하여 1~2시간 내 100페이지를 풀 수 있었습니다.

-특허법-

<점수: 48.33->52>

【강의 및 교재】

▪ 강의: 기본강의, 사례강의(상, 하), 판례강의

▪ 교재

주교재: 준특허법+

부교재: 준특허법 쟁점판례집, 준특허법 통합사례집(상, 하), 타 사례집 1권

【동차 기간】

3~4월에 기초 GS+, 5~6월에 실전 B를 수강하였고 5월에 실전 A를 혼자서 풀어보았습니다. 기출문제가 수록되어있는 사례집(상)도 풀어보았으나 제대로 소화하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동차 때는 총알을 많이 암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기본서를 암기했습니다. 3~4월에는 본문 위주로 암기하고, 5~6월에는 각주에 있는 내용까지 봤습니다. 시험이 임박해서는 학설이나 원심 판례와 같은 +@ 사항은 배제하고 대법원 판례 및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 꼭 외워야 하는 일반론 위주로 반복해서 암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양을 줄이지 못한 것이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주에 나오는 내용들은 답안에 쓸 수도 없는 것들이기에 동차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성격상 강약 조절을 정말 못해서 중요도에 따라 내용을 구별하지 않고 거의 균일하게 봤습니다.

【기득 기간】

동차 때 준특허 교재와 강의가 마음에 들었기에 강의를 전부 수강할 생각으로 패스를 끊었습니다. 기본강의는 학교에 다니며 11월~12월에 틈틈이 수강하였습니다. 시간이 없어 복습은 하지 않았고 최대한 빨리 완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만 나중이라도 회독하며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강사님의 설명을 최대한 사소한 것까지 다 필기하려고 했습니다.

1~2월에 사례강의 (상), (하)를 수강하였습니다. 사례강의는 5분 정도 목차를 잡고 해설을 듣는 식이었는데 이때 저는 암기된 것이 전혀 없었기에 대부분의 문제는 목차를 잡지 않고 바로 해설을 들었습니다.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서 강의를 들을 때마다 괴로웠지만 한편으로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사례강의를 대충이나마 듣고 나니까 GS에서는 대체로 성적이 잘 나와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었습니다. GS 시즌에는 사례집을 볼 시간이 많지 않았고 가끔 사례집(상)만 풀어보았습니다. (하)는 6월 GS 시작 직전에 남는 주말이 있어서 감을 되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루 동안 1회독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판례강의는 들을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여 2월부터 혼자서 판례집을 읽었습니다. 판례집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이동시간에 많이 봤습니다. 판례집에 도식화 자료가 잘 되어 있어 판례의 핵심을 파악하기 수월했습니다. 판례집은 도식화 자료를 보며 어떤 상황인지,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파악하고->어떤 법리를 실시했는지 확인하고->사안포섭을 분석하는 식으로 회독했습니다. 혼자 회독하다 보니 자꾸 앞부분만 열심히 보고 뒤로 갈수록 대충 보는 것 같아서 4월에 판례강의를 빠르게 수강했지만, 이 역시 뒤로 갈수록 대충 듣게 되었습니다.

기득 시기에도 준특허를 최대한 외웠습니다. 동차 때는 각주는 읽어보기만 했다면 기득 때는 각주에 있는 판례도 많이 외웠습니다. 하지만 자칫 지엽적인 내용을 외우다가 중요한 내용을 소홀히 하게 될까 봐 대법원 판례를 선명하게 외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독점규제법 등 출제 확률이 현저히 낮은 부분들은 적당히 답안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했습니다.

-상표법-

<점수: 55->51.33>

【강의 및 교재】

▪ 강의

기본이론강의

▪ 교재

동차: 데생 상표법 점(기본서), 데생 상표법 선(판례집), 데생 상표법 피날레, 사례집

기득: 기본서, 데생 상표법 선(판례집), 데생 상표법 피날레, 최신판례 6개년 자료

【동차 기간】

3~4월에 기초 GS+를 수강하고 5~6월에 실전 B를 수강했습니다. 1차 때 거의 핵심이론정리만 봤기 때문에 상표법이 어떤 과목인지 잘 몰랐고 완전히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상표법은 판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판례가 중요한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GS 복습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평일에는 민소, 특허를 하느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3월에는 상표를 거의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위기감을 느끼고 상표에 대한 감을 빠르게 잡을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때 선택한 것이 사례집이었습니다.

4월 초에 주중에 하루 2시간 정도씩 시간을 투자해서 일주일간 사례집을 1회독했습니다. 목차를 스스로 잡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문제와 답안을 '구경'한 뒤 외워야 하는 판례나 답안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암기하는 식으로 회독했습니다. 그렇게 사례집을 회독한 뒤 GS를 쓰러 가서 답안 구성이 조금은 쉬워졌습니다.

이후에는 주로 기본서를 회독하며 암기했습니다. 그런데 상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했고 특허와 마찬가지로 강약 조절을 하지 않았기에 6월까지도 중요한 내용임에도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또한 전체를 조망하는 연습을 하지 않아서 판례의 위치 설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본 판례 문구들만 막연히 떠오를 뿐 정확히 어디에 써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었던 책이 피날레였습니다. 저는 내용이 많은 책을 좋아해서 기초 GS+ 수강 때 필기만 해두고 피날레를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월에 피날레를 다시 꺼내 회독하면서 상표법의 큰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서를 읽다 보면 계속 판례 문장을 그대로 외우는 데에만 집중하고 전체를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저의 문제였는데 피날레는 목차 위주의 책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체를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얇은 책임에도 거의 모든 케이스에 대해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어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3~4월에는 이게 좋은 책인지도 몰랐는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뒤에 다시 보자 정말 잘 쓰인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 전날에도 특히 1회독을 하고 나니 상표 기본서를 볼 시간이 없어 피날레를 1회독 했습니다.

【기득 기간】

기득 기간에 기본서를 바꿨습니다. 기본서를 바꾼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12월 말까지 제가 한 유일한 상표 공부해 해당 기본서 두문자 암기자료를 외운 것이었고, 동차 때 봤던 사례집이 마음에 들어 이와 호환되는 기본서를 보면 사례집을 공부할 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재를 바꾸기로 마음먹고 해당 책에 적응하기 위해 12월 말에 10일 정도 만에 기본이론강의를 완강했는데 급하게 듣다 보니 별로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기득 이상이라면 많이 듣는 판례강의를 수강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사례집 때문에 기본서를 바꾼 것인데 기득 때 시간이 없어서 상표 사례집을 한 번도 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판례집도 기본서와 같은 시리즈로 바꾸려고 했지만, 저의 실력으로는 강의 없이 혼자 읽기에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어쨌든 상표 판례집을 안 볼 수는 없었기에 최대한 맞는 책을 고르기 위해 총 3권의 책을 비교해봤는데 저는 데생 판례집의 컴팩트함이 좋아서 결국 동차 때 보던 판례집을 그대로 봤습니다. 상표 판례집은 사실관계 파악->설시된 법리 암기->사안포섭 읽어보기 순서로 공부했고, 특히 판례집보다는 좀 더 소설책 읽듯이 가볍게 봤습니다. 당연히 대충 읽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판례집 보는 걸 자주 미루게 되어 대충이라도 여러 번 보자는 생각으로 회독했습니다.

기득 시기에는 기본서를 회독할 때도 문장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먼저 외우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조문의 요건을 두문자로 기계적으로 암기한 뒤 각 요건 아래 어떤 판례가 몇 개 있는지 외웠습니다. 기본서를 읽을 때는 판례집의 사실관계를 떠올렸고 판례집을 읽을 때는 기본서에서의 위치를 떠올렸습니다.

6월에는 동차 때 봤던 피날레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답안작성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 감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답안 구성 능력 유지 목적으로 피날레를 회독했습니다. 보통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봤는데 양이 적어 1-2시간 만에 상표법 전체를 상기할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작권법-

〈점수: 54->70〉

【강의 및 교재】

▪ 강의
기본강의

▪ 교재
기본서

【동차 기간】

저작권법이 양이 적다는 얘기를 듣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 기본강의를 수강하고 5월에 기초 GS, 6월에 실전 GS를 수강했습니다. 기초 GS는 인강으로 수강했기 때문에 답안을 직접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문제와 답안을 읽으면서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식으로만 공부했습니다. 6월에 첫 답안을 작성했는데 5월부터 책을 안 보고 썼던 타 과목들과 달리 7회차까지 책을 봤고 8회차만 책 없이 작성했습니다. 동차 때는 아는 게 없어서 최대한 조문을 그대로 베껴 적는 식으로 양을 늘렸습니다. 5월부터 하루에 30분 정도 투자해서 기본서를 암기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처음 보는 조문이 나왔고 모르고 있었던 최신판례도 나왔습니다. 그냥 양만 채우자는 생각으로 18페이지 정도 소설을 작성했고 54점을 받았습니다.

【기득 기간】

4월부터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 어느새 5월이 되었습니다. 동차 때 보던 기본서를 다시 보면서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6월에 실전 GS를 들었는데 채점을 하나도 받지 못해서 불안해졌습니다. 다만 이때 처음으로 피침해 저작물과 침해 저작물이 완전히 같을 때와 차이가 있을 때를 구별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6월에 다른 과목 GS 성적이 잘 나오자 저작권법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령 불합격하더라도 3법 평균 때문에 탈락하는 것이 선택 탈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에 1~2시간씩 투자했고 기본서도 각주까지 다 외웠습니다. 시험 날 문제가 까다롭다고 생각했는데 채점이 후하게 이루어졌는지 70점을 받았습니다.

-답안지-

【실제 시험에서의 답안】

답안 분량		한 줄 내 글자 수	목차 간 엔터	글자 크기
민사소송법	24페이지	약 20자	1.목차 사이에 엔터 X	세로 폭의 2/3 정도
특허법	21페이지		I.목차 사이에 엔터 O	
상표법	21페이지			
선택과목	20페이지			

【글씨】

글씨가 예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써야 하는 시험이다 보니 교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유일하게 고친 부분은 제가 ㄷ과 ㄹ을 헷갈리게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글자 해독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 ㄷ 쓰는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동차 때 양을 많이 채우려고 글씨를 크게 썼고, 그게 습관이 되어 글씨는 계속 크게 썼습니다. 아래는 제가 시험 2주 전에 작성한 민사 소송법 답안지인데 실제 시험에서의 글씨는 이것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소는 고득점을 했기 때문에 저 정도면 글씨 때문에 불이익받지는 않는구나 하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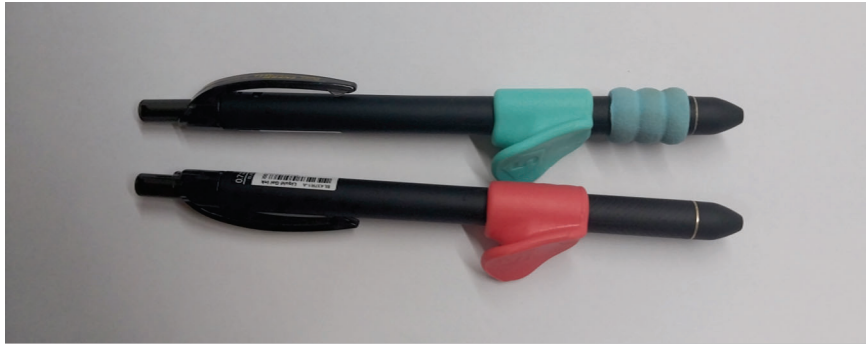
[illegible]

【사용한 펜】

에너지 슬림에 0.7 리필심을 장착해서 사용했습니다. 얇은 펜대를 선호하여 일반 에너지는 너무 두껍게 느껴졌습니다. 동차 때는 일반 에너지보다 조금 얇은 트라디오를 쓰다가 기득 때 더 얇은 슬림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필기구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에너지 슬림+0.7리필이 가장 마음에 들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파지법이 정석적이지 않고 펜을 지나치게 세게 잡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 처음에는 엔젤그립을 사용해봤는데 손이 작아 잘 맞지 않았습니다. 기득 때는 펜타그립을 썼는데 잘 맞았기에 손이 작아서 엔젤그립이 불편한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기득 시기 사용했던 펜의 모습입니다.

기득 때는 손목보호대도 계속 사용했는데 5개 이상의 손목보호대를 사용해 본 결과 런워크 손목보호대가 가장 좋았습니다. 엄지를 잘 잡아주면서도 편안하여 필속에 지장이 없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답안작성 방법】

문제를 풀 때는 날짜와 주체에만 기계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디에 어떤 표시를 할지 정하여 훈련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해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표시만 했습니다.

목차는 문제지 여백에 대목차만 잡았습니다. 대목차도 자세하게 쓰지는 않았고 보통 한두 글자 정도로 알아볼 수만 있게 잡았습니다.

답안 작성 시에는 36-24-36-24를 최대한 맞추려고 했습니다. 물론 맞추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맞추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필속이나 문제 읽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서인지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답안작성 스킬에 대해 많이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동차 때 내용을 공부할 시간도 부족해서 답안지 형식은 하나도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을 많이 틀리고 주논점 누락한 문제들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서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택했던 방법은 본문을 목차보다 조금 들여 써서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합격자분이 해주신 조언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습니다. 목차에 적극, 소극을 병기하거나 키워드 또는 정답에 따옴표를 치는 방식도 쓰지 않았습니다. 시도해 본 적도 있었는데 동차 때부터 하지 않던 것을 갑자기 하려니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판례는 한자로 작성했고 조문은 '제 몇조 몇항'의 형식으로 기재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특허와 상표는 21페이지를 작성했는데, 답안을 새로 받고 이름을 쓰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하면서 두 번째 답안을 받아야 하는 줄 알았고, 특히 특허법은 손을 들었는데도 감독관이 확인하는 데 한참 걸려서 답안을 받는 데만 1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두 번째 답안지는 민소를 제외하고는 채 1페이지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답안지 2권을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히 전략을 세우거나, 그냥 20페이지 안에 끝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시간 관리 및 공부 장소】**

기득 1~3월에 잠깐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집에서 5분 거리 독서실에서 공부했습니다. 보통 아침 8시에 책상에 앉았고 아침에 너무 졸렸기 때문에 9~10시 즈음에 한 시간씩 책상에 앉아 자는 것이 루틴이었습니다. 1차, 동차 시기에는 밥 먹고 다시 책상에 앉기까지 1시간 반 이상이 걸렸던 것 같은데 기득 시기에는 간절함이 커져서 보통 1시간 이내에 다시 착석했습니다.

동차 때까지는 시험 한 두 달 전을 제외하고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에만 공부했지만, 기득 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에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산책을 많이 했는데 산책하는 시간도 아껴워서 하루종일 공부만 했습니다. 길을 갈 때도 암기해야 하는 내용을 혼자 중얼거리면서 걸었습니다. 1차 공부할 때는 일요일은 쉬었는데 2차 공부할 때는 주말에 GS를 써야 해서 쉬는 날은 따로 없었습니다.

과목별 시간 분배에는 실패했습니다. 기득 기간 내내 아침에 민사소송법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특허법, 상표법 순으로 공부했습니다. 당연히 상표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잘못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했는데 점수를 보니 그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체력 관리】

주 3~4회 운동하였습니다. 한번 운동하면 적어도 2~3시간이 소요되었기에 늘 귀찮았고 시간이 아까웠지만, 운동하지 않아서 체력이 무너지면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생각하여 꾸준히 운동했습니다. 저는 복싱을 했는데,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손목을 다칠까 봐 불안했습니다. 2차생이라면 손목에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음가짐】**1. 최악을 상정하고 공부하기**

합격선 근처에 많은 사람이 촘촘히 모여 있는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에서 근소한 차이로 불합격하면, 점수가 낮았던 문제를 떠올리며 ‘이것만 맞췄더라면’, ‘다른 책이나 자료를 봤더라면’, ‘운이 조금 더 좋았더라면’ 같은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엄청난 무력감을 가져옵니다.

저도 동차 불합격 이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득 기간 내내 아무리 불운이 따르고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아슬아슬하게라도 붙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실력을 기르겠다는 의지로 공부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외우고 문제를 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절대적인 실력이 무엇인지를 매일 고민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추상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나마 직관적인 방법은 고득점 합격자와 커트라인 근처 합격자의 수기를 여러 개 비교해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한 이해도와 통찰이 어떻게 다른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나란히 놓고 보며 고득점은 왜 가능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합격 수기를 보면 그 합격자가 어디까지 깨닫고 합격에 이르렀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득점자들이 그 ‘아는 것’의 지평을 어디까지 넓혔는지를 가능해보았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상황은 아예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기득 시험 날 평소 하지 않던 실수를 하고, 감독관 때문에 당황하고, 쓴 것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합격할 방법을 찾아야 합격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GS 성적이 잘 나온 날에는 GS 성적이 좋아도 불합격한 사례들을 떠올렸고, 실력이 오른 것 같다고 느낀 날에는 자신감이 있었음에도 불합격한 사례들을, ‘동차 때 점수가 나쁘지 않았으니 기득 때는 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날에는 기득 때 점수가 오히려 떨어진 사례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저는 상표법 1번과 3번에서 각각 37점, 32점이라는 낮은 문항별 점수를 받았습니다. 올해 제가 가장 잘 본 민사소송법은 평소 기조에 비해 채점이 박했고, 못 본 상표법은 채점이 후했습니다. 그런데도 커트라인과 2.6점 차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사후적 고찰이지만,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고민하다 보면, 합격확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기득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자 노력하기

수기를 보면 기득 내내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동차 때보다 기득 점수가 낮게 나오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겪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득 이상이 훨씬 아는 것이 많은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 사항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저 역시 동차 시기에는 아는 것이 없었기에 양을 채우기 위해 사안포섭을 충실히 하고 아는 것을 전부 적었습니다. 그러나 기득 시기에 어느 순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생략하거나 +@사항에 욕심을 부리다가 사안포섭의 분량이 줄어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식적으로 사안포섭을 더 풍부하게 해보고 답안지 내 비중을 다시 조절해 보았습니다.

1년 더 공부한다고 합격확률이 극적으로 오르는 시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 자체는 좋아지는데도 말입니다. 오로지 답안지로 평가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늘어날수록 자신감도 붙는데 그럴수록 자만하지 않고 정말 내가 아는 만큼 답안에 드러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터디】

스터디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득 때는 전화 암기 스터디라도 해볼까 했지만 혼자 외울 시간도 부족해서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자기주도학습이 잘 되는 편이 아니고 주변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아 따라서 열심히 하는 성격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 시험에 붙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입했는데, 동차 때까지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같이 경쟁하며 공부할 사람이 있었다면 좀 더 빨리 합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득 때는 압박감이 정말 커져서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월비스에서 과목별로 추천하고 싶은 강의/교재가 있다면】

1. 민사소송법 - 통합 민사소송법

소화하기 어려운 책임은 확실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동차 기간 동안 통합으로 공부했음에도 민사소송법이 도대체 뭐 하는 과목인지도 깨닫지 못했기에 기득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답안지에 그대로 옮기기 용이한 얇은 책을 보려고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통합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얇은 책을 회독하면서 배운 것도 있었지만 그 책을 계속 반복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의 상한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실력이 빨리 오르는 것처럼 보여도 7월까지 그 책만 계속 암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3월 말에 책을 바꾸는 다소 과감한 선택을 했고, 저는 이 덕분에 민소 고득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은 공부할수록 실력이 계속 오르는 책임입니다. 회독을 거듭할수록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이 많고 글씨가 빼곡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실력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가독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부 방향만 제대로 잡는다면 저는 민소법 실력을 쌓는데 통합만 한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특허법 - 사례강의, 판례집

사례강의는 (상), (하)를 불문하고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스스로의 무지를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강의는 내용이 어렵더라도 적당히 듣고 넘겼는데, 특허 사례강의는 물리적으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많은 고통은 빠른 성장을 수반하기에, 강의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조금씩 실력이 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례강의를 듣고 나니 3월부터 특허 GS는 거의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 심적 부담이 덜했습니다.

2차 공부하는 내내 판례집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저에게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 제가 유일하게 잘 활용했던 판례집이 준특허법 쟁점판례집이었습니다. 특허 판례에는 기술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시험에서는 기술적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원문만 읽어서는 자칫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비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판례집은 판례마다 도식화 자료 및 요약이 잘 되어 있어 이 판례가 왜 중요한지 무엇이 문제되었는지 빠르게 핵심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례별 중요도 설정이 되어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별 3개 이상인 판례는 요약을 읽고 원문도 읽었고 별 0~2개인 판례는 요약 자료만 읽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3. 상표법 - 피날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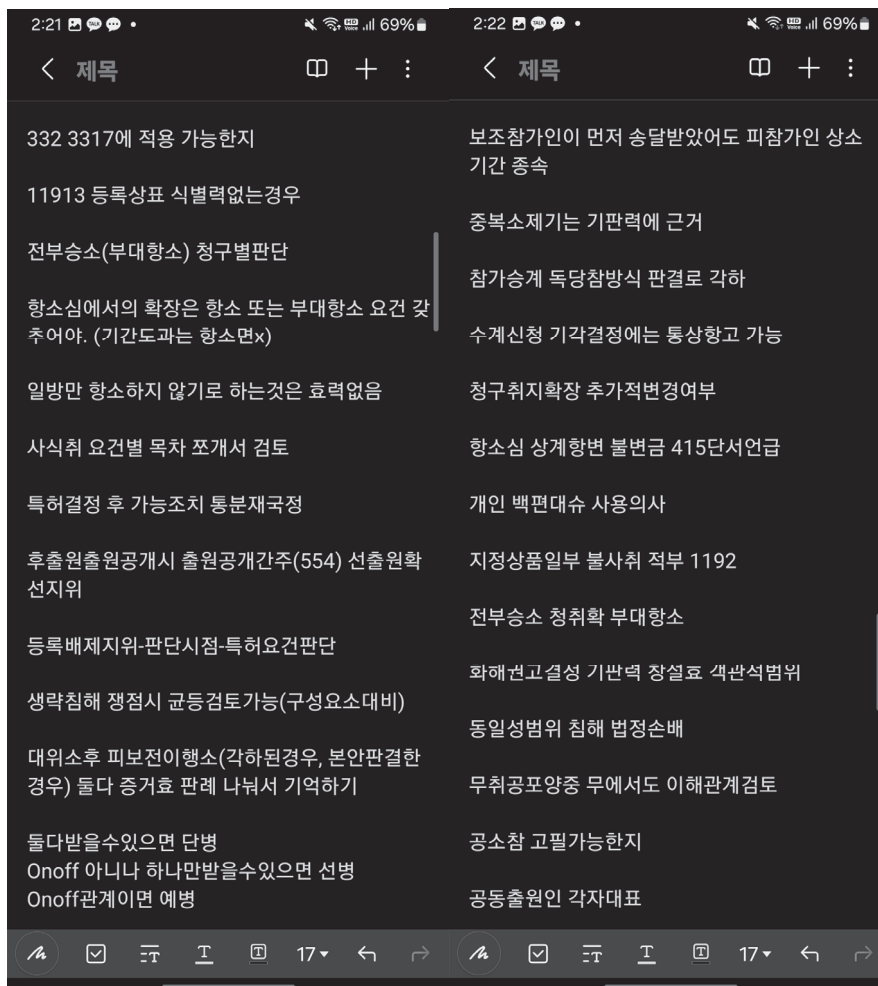
대생 시리즈의 장점은 컴팩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날레는 그 장점이 극대화된 책입니다. 수험기간 동안 접한 수많은 정형화된 수험서 가운데 피날레는 가장 특이한 형식을 가진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특한 형식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서는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아는 만큼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책이 뛰어나더라도 아는 것이 없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적습니다. 그러나 피날레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 모두에게 활용도가 높은 교재입니다. 2차 상표법에 감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가장 빠르게 답안의 구색을 갖추는 방법을 제시하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표법의 전반을 신속히 상기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저 역시 기본서를 바꾼 기득 시기에도 짧은 시간 안에 상표법 전반을 다시 떠올리는 용도로 피날레를 활용했습니다.

기본서와 판례집만으로도 상표를 잘하시는 분들께서는 필수 교재는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한 동차생, 상표법이 싫어 회독이 계속 밀리는 분, 상표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 또는 답안 구성이 어려운 분이라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만의 장점과 개성이 독보적이기에, 설령 기본서는 점이 아닌 다른 것을 보더라도 상표법 공부 방향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피날레를 보며 답을 찾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답노트 작성】

오답 노트는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실수가 반복되기에 오답 노트를 통해 실수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많은 분이 오답 노트를 작성하기에 상대평가인 시험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라도 작성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분이 하듯이 기본서 앞에 포스트잇으로 붙이지는 않았고 핸드폰 메모장에 작성하여 가끔 생각날 때마다 읽어봤습니다. 아래는 제가 작성했던 오답 노트의 일부인데, 적을게 생각날 때마다 막 적었기 때문에 과목별로 분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암기 방법】

1. 전반적 암기 방식

암기는 기본서를 회독하면서 하는 것이었기에 특별히 암기 시간이나 암기량을 정해놓고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두문자가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들은 두문자로 외웠습니다. 동차 때에는 주로 문장 통암기를 했습니다. 강약 조절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기에 문장 하나하나를 영어단어 외우듯이 통째로 외웠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이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키워드를 가려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기득 때도 문장을 전부 암기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은 비슷하지만, 각 문장의 논리 구조를 납득하며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도록 했고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더 힘줘서 외웠습니다. 동차 때처럼 사소한 조사들을 외우느라 지나치게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습니다.

2. 민사소송법 판례암기 - 분설해서 외우기

민사소송법의 경우 판례를 외우기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외우더라도 특히, 상표에 비해서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오로지 암기 편의를 위해 최대한 판례를 끊어서 외워보려고 했습니다. 확실히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오래 기억에 남고 촘촘하게 외우기가 용이했습니다. 아래는 제가 나름대로 판례를 분설해서 암기했던 예시입니다. 원문자 부분이 끊기는 부분입니다. 요령이라기보다는 정공법에 가깝지만, 제가 자신 있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부 방법 중 하나입니다.

b. 상소불가분원칙 적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배제

i)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으므로, ^①수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②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상소불가분) ^③심판대상이 된다(=이익·불이익변경금지원칙배제) (●대판 2014.3.27. 2009다104960). 판례는 “공동소송인들 및

1) 할 수 있는 행위

선정당사자는 선정자의 대리인이 아니고 당사자 본인이므로 소송대리인에 관한 제90조 제2항(특별수권사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①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②일체의 소송행위(특별수권 없이 취하, 포기·인낙, 화해, 상소,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심급대리원칙 부작용=167조)는 물론 ^③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도 할 수 있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선정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

iii) 판례 종전 판례는 “독립당사자참가와 같은 삼면소송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고,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공동소송으로 존속한다”고 했다(대판 2004.7.9. 2002다16729. 院2, 18쪽). 전원합의체 판례는 “(권리승계)승계참가에서 ^①승계된(중첩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인용될 수 없기 때문에 ^②주장 자체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③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나(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처럼 필수적 공동소송규정을 적용해(두 청구를 모순 없이)합일확정할 필요성이 있다(21·23쪽, 理23, 行23)”고 하여 견해를 변경했다(●대판 전원 2019.10.23. 2012다46170=

3)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의(지속 여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를 상대로 고지한 경우에 참가효까지 발생함에 비쳐 볼 때) 고지자는 ^①소송고지를 통해 당해 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지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므로, ^②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최고에 의해 권리행사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위 2009다14340. 14쪽. 甲이 S의 차와 충돌해 부상을 입고 B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i) 동 결정의 창설적 효력과 기판력 한정소. 새로 생긴다 / 기판력. 못 바꾼다. “화해권고결정은 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② 재판상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③ 종전 법률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대판 2008.2.1. 2005다42880). “그리고 다른 법률관계에 관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
② 후소 원고의 원고적격 흠결 여부 반면 ① 채무자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말소청구를 할 수 없고 ② 대위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소유권이 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는 결과, ③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판례도 있다(대판 2014.3.27. 2009다104960, 104977. P72-6 참조).
✓ iv) 변론종결 후 재산분할협의 사실 ~ 사실은 ~ ~ ~ ~ ~ ① 전소에서 원고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했으나 ② 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인용(나머지 상속분은 가)판결이 확정되었다면, ③ 그 기판력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나머지 상속분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1.6.30. 2011다24340, 2012.2.20).
8.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취소채권자의 채무자를 대위한 채권 청구(불가) ①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통지가 이루어져도, ③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해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④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15.11.17. 2012다2743).

3. 조문 번호 암기

저는 조문 번호를 정말 열심히 외웠습니다. 어떤 답안이 좋은 인상을 주는지 수험생 관점에서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충실히 병기한 답안이 그렇지 않은 답안보다 좋아 보일 것임은 법학에 조예가 없는 저에게도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조문 번호까지 최대한 외우려고 했습니다.

【기본서 정리 방법】

저는 고교 시절 암기과목을 공부할 때 거의 모든 글자에 형광펜을 치면서 공부했습니다. 산만한 탓에 형광펜을 치면서 읽지 않으면 오롯이 그 문장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차 때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기본서에 두서없이 형광펜을 칠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같은 책을 반복 회독해야 하는 시험에서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기득 때는 기본서를 정리하면서 조금 더 일관성을 가졌습니다. 우선 많은 분이 하듯이 목차 준위별로 색을 달리하여 형광펜을 칠했습니다. 사실 이 작업이 어떤 대단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더 잘 외워 지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가독성을 약간이라도 높여보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본문에는 형광펜을 칠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키워드나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싶더라도 샤프나 지워지는 볼펜으로만 표시했습니다. 공부할수록 새로운 것이 보이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달라지기도 하기에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편이고 깔끔하게 필기하고 정리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에서 기본서가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적어도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정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서에 GS 출제 여부나 GS에서 틀린 부분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GS 복습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서에서 일일이 찾아 표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GS 자료와 기본서를 별개로 회독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아래는 형광펜을 남용한 동차 시기 기본서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정리한 기득 시기 기본서의 같은 페이지입니다.

동차

기득

5.3 독점적 통상실시권

1. 이익

특허발명을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발생

대법원 1999는 특허권자가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기로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201842216769)171

3-1. 침해금지청구 거부

(1) 독립적 통상실시권자 스스로 침해금지청구 거부

① 공정성, 독립적 통상실시권도 전용실시권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견해.
② 본질성, 독립적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법률상 구별된다는 견해가 있다.

③ 대법원 1999는 저작권법 관련 사건에서, 독립적 이용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부정한 바 있다. (지작권 1999 2005411630)

④ 생각건대, 법 제126조 명문상 부정성이 타당하다.

(2)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대위행사 거부

① 공정성, 독립적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제3자 침해배제청구권을 가진다는 견해.
② 본질성, 대위행사를 위한 피보전책권이 없다는 견해가 있다.

③ 대법원 1999는 저작권법 관련 사건에서, 독립적 이용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허용한 바 있다. (지작권 1999 2005411630)

④ 생각건대, 독립적 통상실시권자는 달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공정성이 타당하다.

3-2. 손해배상청구 거부

㉔(1) 문제점

① 법 제128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만 구할 수 있다.

② 독립적 통상실시권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판례

특허법원 1999는 ① 독립적 통상실시권자가 누리는 경제적 이익은 결국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자의 독점적 배타적 실시권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원적으로 보호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② 독립적 통상실시권자는 독립적 실시로 향유하는 경제적 이익을 원천적으로 침해한 자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2017-42332)149

1313 미등록 전용실시권자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는 "실시권자와 타인에게 실시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민법, 미등록 특허권자도 마찬가지임)

① 등록 전용실시권자는 독립적 통상실시권자로 볼 수 있다. (민법, 미등록 특허권자도 마찬가지임)

144 사실상의 독립적 통상실시권 인정기부

① 대법원 1999는 1) 특허권자가 어느 한 실시권자에게만 유일하게 실시권을 부여하였더라도 2) 그 실시권자 이외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3) 독립적 통상실시권자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201842216769)

② 생각건대,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 이때, 특허권자는 언제든지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154 과실의 추정

위 특허법원 1999는 특허법 제130조를 이유로 과실이 추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2017-42332) 149

246 1 존 특허법

5.3 독점적 통상실시권

1. 이익

특허발명을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발생

대법원 1999는 특허권자가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기로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201842216769)171

3-1. 침해금지청구 거부

(1) 독립적 통상실시권자 스스로 침해금지청구 거부

① 공정성, 독립적 통상실시권도 전용실시권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견해.
② 본질성, 독립적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법률상 구별된다는 견해가 있다.

③ 대법원 1999는 저작권법 관련 사건에서, 독립적 이용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부정한 바 있다. (지작권 1999 2005411630)

④ 생각건대, 법 제126조 명문상 부정성이 타당하다.

(2)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대위행사 거부

① 공정성, 독립적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제3자 침해배제청구권을 가진다는 견해.
② 본질성, 대위행사를 위한 피보전책권이 없다는 견해가 있다.

③ 대법원 1999는 저작권법 관련 사건에서, 독립적 이용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허용한 바 있다. (지작권 1999 2005411630)

④ 생각건대, 독립적 통상실시권자는 달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공정성이 타당하다.

3-2. 손해배상청구 거부 ㉔(1) 문제점

① 법 제128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만 구할 수 있다.

② 독립적 통상실시권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판례

특허법원 1999는 ① 독립적 통상실시권자가 누리는 경제적 이익은 결국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자의 독점적 배타적 실시권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원적으로 보호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② 독립적 통상실시권자는 독립적 실시로 향유하는 경제적 이익을 원천적으로 침해한 자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2017-42332)149

1513 미등록 전용실시권자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는 "실시권자와 타인에게 실시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민법, 미등록 특허권자도 마찬가지임)

① 등록 전용실시권자는 독립적 통상실시권자로 볼 수 있다.

174 사실상의 독립적 통상실시권 인정기부

① 대법원 1999는 1) 특허권자가 어느 한 실시권자에게만 유일하게 실시권을 부여하였더라도 2) 그 실시권자 이외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3) 독립적 통상실시권자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201842216769)

② 생각건대,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 이때, 특허권자는 언제든지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184 과실의 추정

위 특허법원 1999는 특허법 제130조를 이유로 과실이 추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2017-42332) 149

442 1 존 특허법

궤단위법 및 작곡권 → 소용물이지만 다른 기법과 작용에서 (적용이유) (441 5)
제3장 중독판결에 의한 종료 | 479

전소 판결의 기관력은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아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 작용한다(OKA). 선결·모순 관계의 경우에도 기관력이 작용하는 것은 판결을 통일하려는 것이다.

(1) 소송물의 동일

예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1회 확정판결 받고 다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이다.

1) 소유권확인의 전소에서 패소한 원고가 동일한 소유권확인의 후소를 제기한 때

⑤ 후소법원은 전소 변론종결시에 소유권이 없다는 판단을 전제로, ⑥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는 배척하고, 변론종결 후 사유를 조사해, ⑦ 후소를 판단한다. 변론종결 후 사유가 없으면 소의 이익 흠결을 이유로 소각하(미판결)될 배척(판결)되는 기판적작용에 의해 기판(변론종결 후 사유로 소유권취득사유가 있으면 인용한다).

2) 소유권확인의 전소에서 승소한 원고가 동일한 소유권확인의 후소를 제기한 때

⑥ 후소법원은 전소 변론종결시에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⑦ 변론종결 전 사유는 배척하고, 변론종결 후 사유를 조사해, ⑧ 후소를 판단한다. 변론종결 후 사유가 없으면 소의 이익 흠결을 이유로 소각하(미판결)될 배척(판결)되는 기판적작용에 의해 기판(변론종결 후 사유로 소유권상실사유가 있으면 기각한다).

3) 승소확정판결 등이 존재해도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2017)

① 원칙적 불허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관력이 있으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전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소의 이익이 없어 소가 취하 위 P20 미판결) 불허.

②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위 P20) 그러나 ㉔ 확정판결에 의한 재판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해 시효중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㉔ 전소 판결(또는 ㉔)에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변칙 취하(또는 ㉔)로 정정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전소가 허용된다(이때 ㉔ 전소 2018422008, ㉔ 전소 1998415 974257698, 1811149284에 의해 소의 이익이 존속한 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전소 소송물과 동일한 재판에 대해 제1회 소가 제기된 사실에 대해)

[소속확정판결 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한 소 제기 시의 이익] (㉔ 전소 2018419 2018422008)

금정심(대법원의 다수의견, 통설) "① 확정판결에 의한 재판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② 다른 시효중단사유인 압류·승인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지 않음에도 재판상 청구만 1회로 제한될 근거가 없다"고 한다.

부정심(대법원의 소수의견) "① 이미 이행판결을 가진 경우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 ② 다수의견에 따르면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재판도 10년마다 소제기에 판결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재판이 될 수 있다. 이는 소멸시효제도를 통 관념이 위도한 결과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결론

"확정판결에 의한 재판과도 제후자가 패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재판자에게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공평에 맞다"(이는 다수의견).

(소속확정판결 후 동일한 소 제기(도소)의 본안심리 방법 및 인용되는 판례의 소의 이익)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후 당사자의 지위소멸(소지권)에 대한 재판을 전소판결 후 당사자의 지위에 대해 상행이 심리가 전제해 승정법원부서의 초기 제1회 때와 큰 차이가 없다. 전소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후소를 각하하고 승정법원부서의 소를 제1회로 하는 것은 신칙한 본정법원이나(소송정지)에 반한다"(대법원 2023.1.20. 20210720. 양형에 양형에 대한 보충판결소속확정판결 후 제1회로 제1회로 승정판결 후 당사자 제1회로)

마치며

저는 살면서 될 것 같은 일에만 도전해 왔습니다. 변리사 시험도 ‘적어도 기득에는 붙겠지’ 하는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처음으로 안 될 수도 있는 일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 시험은 저에게 겸손과 성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늘 하고 싶은 일을 고르기보다 하기 싫은 일을 피하는 쪽을 선택했고, 공부도 마음 내키는 대로만 해 왔습니다. 하지만 합격을 위해서는 도망치지 않고 스스로의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적어도 이 시험에서 ‘최선’은 ‘나름대로 열심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하고 모두가 간절하기에, 이 시험에 딱 맞는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그저 오래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이 어떤 사고 구조를 요구하는지,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를 끝까지 추적하고, 스스로를 그 틀 안에 억지로라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수기가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을 했는지보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끝내 어떻게 자기 방식을 찾아갔는지에 집중해 읽어 주신다면, 분명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명	김준현	수험기간	2022.10~2025.07.
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전공	기계공학부
키워드	군대병행 기득 1차-35등 2차-21등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62기 변리사 시험 합격자 김준현입니다.

수험생 시절 여러 합격자분들의 합격수기들을 찾으며, 제 상황에 맞았던 합격수기를 찾아 참고했던 생각이 듭니다.

저는 1차 시험을 군 복무 중에 합격했고, 동차 시절을 현장을 수강했으나 기득 시절을 서울에 있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1차 시험 준비과정은 별도로 기록해둔 것이 없어 정확한 회독 시기 및 회독 횟수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작성해보겠습니다. 부족함 많은 수험생활이었지만, 이 글이 관련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1차 공부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90점	97.5점	75점

-민법-

<점수: 90

【강의 및 교재】

-강의 : 김동진T 2022 민법 기본강의

-교재 : 2022 민법공방 - 5판 / 2023 민법공방연습 - 4판

【시기별 공부】

10~2월	3월~8월	9월~12월	1월	~시험
민법 기본강의	-기본서 회독 -김동진T 복습자료 ox 학습	-기본서 회독 -민법공방연습 풀이	-기본서 회독 -민법공방연습 회독 -최신판례 특강 -년도별 기출문제	오답 회독 포함한 교재 회독

-일병 기간 말미에 민법 기본강의 수강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공부에 전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완강에 4개월 가량 걸렸습니다. 상병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근무 시간을 제외하고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기본강의 완강 후 23년 2월 60회 1차 시험에 응시해보았습니다. 자연과학을 제외하고, 민법, 산재법 모두 과락이었으나 시험장 분위기를 익힐 수 있어 개인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는 김동진T 민법 기본강의만 수강하였습니다. 강의 완강 후 민법공방연습 출간 전까지 기본서 회독만 반복하며 자연과학 문제풀이 및 산재법 기본강의 진도를 나갔습니다. 기본서 회독이 너무 루즈해진다고 생각들 즈음에 민법공방 OX 복습 자료를 회독 진도에 맞추어 활용하며 셀프 체크 병행했습니다.

【회독 방법】

-김동진T 카페에 법학 교재 회독 방법에 짧은 강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핵심은 **연필 - 볼펜 - 형광펜의 순서**를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실물책으로 공부하는 경우에 회독방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생각되어 이는 2차 공부까지 대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강의 수강 중 : 연필로만 필기

-회독 중 : 검정 볼펜 밑줄 (암기할 내용 선별하여 검정 볼펜 밑줄 작업)

-회독 반복 후 : 빨간펜 (취약 부분) / 파란펜 (민공연 오답 반복)

-민공연 4회독 후 : 민법공방 기본서에 노란 형광펜 (파이널까지 숙지가 될 된 내용들)

-시험 하루 전 회독 준비

저는 시험 하루 전 법학 전과목 1회독을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전범위 1회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시험 2주 전 마지막 기본서 회독시에

전날 볼 내용을 선별하여 보라색으로 표시한 후에, 시험 하루 전에는 나머지 내용들은 모두 날리고

보라색 형광펜만을 찾아가며 빠르게 훑었습니다.

-회독 횟수

-기본서 : 전범위 순서대로 약 5회독 정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집중도가 너무 떨어져 '요건 암기', '조문 학습' 등 테마를 정해, 테마에 맞게 회독 진행했습니다. 총 7회정도로 기억합니다.

-민법공방연습 : 3회독

풀이 후 빈공간에 ○(법리 이해 & 답 맞춤), △(답 맞춤&이유 불분명), X(오답)을 표시하며, 전체 3회독 하였습니다. 이후엔 전체 ○인 문제는 넘어가고, △가 포함된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4번째가 ○인 문제들은 다시 넘어가는 식으로 하여 오답만 훑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남기고 싶은 말】

60회 대비용 22년 기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당시에 1년이 지나면 새로운 판례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개념이 없었기에 아무 생각없이 강의를 구매해 공부를 시작한 것이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23년 기본강의가 나올 때 민법 수강을 시작했다면 완강이 늦어져 군복무 중에 모든 공부를 마치지 못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좋은 선택이었다고 느낍니다. 김동진T 커리큘럼 기준으로 추록과 최신판례 특강으로 개정판에 대한 커버는 모두 가능했었기에, 향후 공부시간 확보가 얼마나 가능할지 불투명하신 군인분들께는 관창은 선택지라 생각합니다.

민법에 투자한 시간 비율이 전체 공부의 50% 가량이었습니다. 2차 공부를 마친 후 되돌아보니 그 비율이 더 높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 시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에 개인적 판단으로 민법은 1차에서만 치르고, 산재법이 2차에서 다시 시험과목이니 더 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민법보다도 강의를 더 들으며 결과적으로 과투자를 했습니다. 1차 시험 합격의 당락을 가리는 과목임을 넘어, 2차 민사소송법 학습시에 종종 민법 법리가 걸림돌이 되곤 했습니다. 그 구멍을 메우는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웠었고,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객관식이니 외우고 넘기자', 했던 해설 내용들을 꼭 공부하고 진도를 나가고 싶었습니다.

-산업재산권법-

<점수: 97.5점>

【강의 및 교재】**-특허법**

- 강의 : 타학원 기본강의, 중급강의(판례), PCT 특강
- 교재 : 타학원 기본서, 판례집, 기출문제집, 객관식 문제집

-상표법

- 강의 : 김영남 T 기본강의 / 김영남 T ox 문제풀이
- 교재 : 김영남 T 기본서 / 기출문제

-디자인보호법

- 강의 : 김웅 T 기본강의
- 교재 : 김웅 T 디자인보호법 기본과 이론 / 기출문제집

【특허법】

3월~5월	6월~7월	8월~10월	11월~1월	~시험
기본강의	중급강의(판례)	-PCT 특강 -기출문제집	-년도별 기출 풀이 -객관식 문제집	회독

【상표법】

8월~9월	10월~11월	12월	1월	~시험
기본강의	-기본서 회독 -진도별 기출문제	년도별 기출문제	객관식 문제집	회독

【디자인보호법】

11월	12월	1월~시험
기본강의	-기본서 회독 -진도별 기출문제	회독

【남기고 싶은 말】

기본서 회독 횟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는 특허 최소 4회독 이상, 상표, 디자인은 3회독 했습니다.

특허는 기출문제를 보면 답이 다 기억이 나서 객관식 문제집 1회독 빠르게 진행 후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민법 기본강의 수강할 때,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면, 민법 강의 완강 후 첫 회독과 특허법 기본강의를 병행할 때는 '합격할 수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1차 시험 준비에서 새로운 법과목을 시작할 때, 계획 세우는 것과 공부방법에 대한 의심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욕심이 들어 커리큘럼의 모든 강의를 수강하려 계획을 했는데, 공부를 하며 필요하다 생각이 들 때 적합한 강의를 찾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법은 요일 구분없이 꾸준히 회독을 했고, 산재법은 최대한 회독 주기를 짧게 만들어 요일별로 민법과 적절히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1월부터는 기본서 1회독에 특허 8일, 상표 5일, 디자인 3일 정도 걸렸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특허는 민법과 같이 '보라색 형관편' 작업 후 표시부분만 회독했고, 상표와 디자인은 하루 1회독 가능했습니다.

-자연과학개론- <점수: 75점>**【강의,교재 및 시기별 공부】**

	23년 2월~4월	23년 5월~6월	23년 6월~8월	23년 9월~11월	23년 12월~시험
물리	문제풀이 강의	기출풀이 오답노트	기출 및 강사 교재 회독	기출 및 오답 회독	기출 및 오답 회독
화학	문제풀이 강의	기출풀이 오답노트	기출 및 강사 교재 회독	기출 및 오답 회독	기출 및 오답 회독
지구과학			-기본강의 -기출 풀이	오답노트	기출 및 오답 회독
생물				기본강의	-기출문제 강의 -오답노트 -기출 및 오답 회독

-물리

-강의 : 타학원 문제풀이 강의

-교재 : 타학원 문제집

-화학

-강의 : 타학원 문제풀이 강의

-교재 : 강의 자체 보충자료

-생물

-강의 : 타학원 기본강의 / 21개년 기출문제 강의

-교재 : 타학원 기본강의 / 기출문제집

-지구

-강의 : 박준희T 기본강의

-교재 : High-End 지구과학 전정9판 / 필기노트

【물리(5/10), 화학(5/10)】

고등학교에서 II 과목을 수강했었고, 대학교에서도 일반물리, 일반화학을 모두 수강하고 전공수업으로 기계공학과 역학 강의까지도 모두 수강했었습니다.

기본강의는 듣지 않고, 문제풀이 스킬 위주의 짧은 강의들을 2월~4월에 수강 후 나머지 기간은 모두 문제풀이에 투자했습니다. 강사분들 교재 및 기출문제 풀이 후 오답노트 작성에 1개월 가량 투자했습니다.

【생물(10/10)】

대학교 1학년 일반생물을 벼락치기 해본 것을 제외하고 접해본 적이 없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가장 자신이 없는 과목이었기에 막판에 강의를 수강 후 단기기억으로 대비하고자 전략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난이도가 쉬워 고득점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서 3회독 후, 21개년치 기출문제 5회독 가량 했습니다.

오답노트 작성했으며, 가장 오답노트의 효율이 좋은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지구과학(10/10)】

수능 지구과학1 응시하였고, 과외도 했던 과목입니다.

월비스 박준희T 기본강의만 수강 후 기본서 회독 및 기출문제 풀이만 반복했습니다.

기본서 회독 4회독 및 기출문제 5회독 가량 했습니다.

【남기고 싶은 말】

물리를 공격과목으로 생각했고, 전공이 기계공학이기에 고득점을 목표했으나 5개박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포장을 하자면 제가 세웠었던 전략과 관련이 있는데, 저는 물리 → 생물 → 지구과학 → 화학 순서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읽자마자 풀이가 떠오르지 않는 문제들은 미련없이 넘어가고, 한 바퀴를 빠르게 돈 후 답을 정하지 못한 문제들 중 풀수 있을 문제를 찾았습니다.

화학 기출문제 중 해설만 A4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문제들을 접한 후엔 **시험장에서 절대 풀지 못할 문제들을 찾아내서 시간을 세이브**하기만 해도 자연과학은 성공이라고 생각이 들었기에 위와 같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실제 61회 시험장에서 첫 번째 사이클(약 20분)에서 물리는 4문제, 화학은 3문제만 풀었고 생물, 지구과학 풀이에 시간을 투자한 후에 남은 시간에 물리, 화학에서 풀 수 있을만한 문제들을 찾아서 4문제를 더 풀었습니다. 결국 화학은 풀지 못한 6문제를 모두 4번으로 기동을 세운 후 OMR을 제출했습니다.

59회 이후의 난이도를 생각할 때 60분 동안 40문제를 모두 풀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했고,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의 점수가 똑같기에 개인적으로 고민 후 물리, 화학 고득점을 포기하고 시험장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공격과목, 방어과목을 고려해 자신이 가장 40문제에서 점수를 잘 뽑을 방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과목 모두 오답노트 작성했습니다. A4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40매짜리 노트 2권 가량 분량입니다. 과학에서 오답노트가 시간 낭비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인적인 공부 습관이 수학, 과학에서 오답노트를 중요시 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투자했습니다. 화학에서 실수 줄이기와, 지구과학, 생물 암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자연과학 공부시간 줄이기**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년도별 기출문제 풀이**를 방안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숙지된 후에는 1개년 10문제만 풀이 후 관련 내용만 교재에서 학습하거나, 오답노트를 다시 보는 식으로 하여 문제 풀이에 15분, 풀이 후 학습에 20~30분 정도로 한 과목 학습을 1시간 내로 줄인 후 요일별로 과목을 나눠 공부했습니다.

-기타-

【시간 관리】

부대 내에서 공부하였고, 2월 마지막 휴가를 제외하고는 휴가 중에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휴가까지 공부하실 분들은 제 시간표에서 2개월 정도 뒤로 밀려도 전혀 지장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근무지 특성상 3주 근무 후 2주 정도는 근무시간에도 시간 여유가 많았고, 상병 3호봉이 된 4월부터는 여유있는 2주 기간에는 근무시간에도 조금씩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평일 (24년 1월 이후, 평균 3~5시간)

- 기상 후 출근 전 약 30분 독서실 공부
- 중식 후 휴식시간 약 30분
- 석식 후 18:30~21:00 : 사지방 강의 수강, 평균 2시간
- 점호 후 연등시간 : 평균 1시간

-주말 (평균 6~8시간)

- 주말에 당직근무 및 별도 업무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외 시간은 모두 공부했습니다.
- 시험 직전을 제외하고는 동기들과 시간 보내는 등 휴식도 취했습니다.

【체력 관리】

부대 내 헬스장에서 일과 종료 후 석식 전 시간에 매일 웨이트를 했습니다. 심하게 빠져들어 공부할 체력까지 운동에 투자한다고 느껴 9월 이후 공부만 했었는데 단기간에 살이 많이 찌고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2차 준비 시작 후에도 동차까지 운동을 하지 않다가, 기득 시절은 주3회 이상 운동하며 다시 체력을 올렸습니다. 원래 운동하시던 분들은 끝까지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차 공부

<동차 - 불합격>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61.33점	43.66점	58.66점	67점

<기득 - 합격>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62.33점	52.66점	58.66점	57.66점

*GS단권화는 한경훈 변리사님께서 강의 중 설명해주신 GS복습 방법 기준입니다.

-민사소송법- <점수: 62.33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동차 : 이창한T 기본강의(온라인) / 이창한T 사례강의(온라인) / 이창한T 61회 기초 GS(현강)

이창한T 61회 실전 GS B형(온라인)

-기득 : 이창한T 심화강의(온라인) / 이창한T 62회 실전 GS A형(온라인) / 이창한T 61회 실전 GS A형(온라인)

이창한T 62회 실전 GS B형 (온라인)

▪ 교재

-동차 : 2024 통합 민소법 / 2024 사례 민소법 / 2024 핸드북 민소법 기출문제 / 2024 민소법 암기노트

-기득 : 2025 통합 민소법 / 2025 사례 민소법 / 2025 핸드북 민소법 기출문제

【수강한 GS】

24년 11월 ~25년 6월 중순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이창한T 심화강의 -민소 전화 암기스터디	이창한T 62회 실전A	이창한T 61회 실전 A	이창한T 62회 실전 B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24년 3월~4월 중순	~24년 5월 중순	25년 5월	25년 6월
이창한T 기본강의	이창한T 사례강의	이창한T 61회 기초GS	이창한T 61회 실전 B

-전역 후 곧바로 서울에 고시원을 구하며 시간을 허비해 3월 첫째주 중반부터 이창한T 기본강의 수강 시작했습니다. 이때 8~10일 가량 공부가 밀린 것이 5월 기초GS까지 영향을 줬다 생각이 들었는데, 가능하면 강의 열리는 시점에 바로 수강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불합격한 시험이지만, 민사소송법 자체는 합격에 지장없는 점수를 받았다 생각했습니다. 동차 기간을 돌이켜보면 5월 중순

김진주 변리사님의 조언을 듣고 통합에서 이창한 강사님의 '민사소송법 암기노트'로 교재를 변경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빠진 내용 중 중요하다 생각하는 파트들을 포스트잇으로 목차만 추가한 후 2개월 가량 암기노트로 회독하며, 회독 수를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중요 쟁점들의 목차 숙지조차 버거웠기에 잘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 기득 기간

- 암기노트 구판 회독 (1회)
- 통합 전체 회독 (구판 2회 / 신판 5회독)
- 암기스터디 발췌독 (약 9회독 - 중요도를 4단계로 나누어 중요도별 회독하여 통합 1회독의 3/1 분량 정도입니다)
- 사례집 (구판 1회 / 신판 전체 1회, 오답 2회)
- 기출문제 핸드북 (전체 1회, 오답 2회)
- GS 단권화 (2회독) (모두 이창한 강사님 GS입니다.)

61회 자료 - 기초GS, 실전A, 실전B

62회 자료 - 실전A, 실전B

-9월

- 민사소송법 암기노트 1회독
- 통합 민사소송법 2024판 1회독

-10월

- 통합 민사소송법 2024판 1회독
- 사례집 중요쟁점 목차 학습 1회독 (약 120문제)

-11월

- 이창한T 심화강의 수강
- 민사소송법 전화 암기스터디 시작 (11월18일)

-12월

- 이창한T 심화강의 수강
- 민사소송법 사례집 구판 1회독 (중복 or 중요도 후순위 제외)
- 12월~4월은 교재 순서대로 회독은 멈추고, 심화강의 강의 내용과 암기스터디 분량 발췌독 했습니다.

-1월~3월

- 심화강의 복습
- 전화 암기스터디
- 1월부터는 암기스터디를 깊이있게 해서 암기 외에도 준비를 방대하게 하다보니 암기스터디 분량 학습에 집중했습니다.

-4월~6월

- 온라인 GS 수강
- 한경훈 변리사님께서 GS단권화 설명해주시면서, 민소의 경우 한 강사분의 2,3개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하셔서 동차 때 수강하지 못한 61회 실전GS A형을 5월에 개인적으로 공부했습니다.
- 5월부터 GS단권화 분류작업 시작했습니다.
- 6월엔 GS단권화 학습에 대부분 시간 투자했습니다.

-7월

- 2025 통합 민사소송법은 전자책으로 학습했는데, 시험 직전 마지막 회독시 불편할 것 같아 실물책에

마지막 회독할 내용을 작업했습니다.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 전날 볼 내용을 '보라색 표시' 작업 후 시험 전날 전체1회독 했습니다.

【회독 방법】

-통합을 자신에게 맞는 책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목차들 상위목차부터 '빨주노초파' 순서대로 형광펜 처리하여 읽고 있는 내용이 어느 준위에 있는지 파악하며 읽었습니다. 통합은 하위목차가 계속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상위목차에서 밑줄이 아닌 괄호로 표시하는 등으로 저만의 방법으로 상하위 구분을 했습니다. 기득 기간에는 교재에 '선결 논점'까지 표시 후 함께 공부했습니다. 암기 스터디에서 주로 주고 받은 질문이 선결 논점이기도 했고,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답안지에서 '문제의 소재'에서 차별화를 줄 수 있고 한경훈 변리사님께서 설명해주신 양늘리기 방법으로 이어진다 생각했습니다.

-교재 목차를 답안지에 쓸 내용으로 편집했습니다. 교재의 목차와 답안지의 목차가 상이하면, 회독의 효율이 떨어지다 생각해서, 암기할 목차로 교재 목차를 변경하거나 방대한 파트들은 답안지용 목차를 빈 공간에 모두 적어두고, 회독시 함께 보았습니다. 다만, 기득 시기에는 전자책으로 학습해서 스터디 및 GS 수강하며 계속 변경했습니다. 다듬어 가서, 마지막 회독에서 체계 가장 맞는 목차 체계를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동차시절에 많이 활용한 방법으로 '중요도 표시'가 있습니다. 대부분 법학 교재에 중요도 표시를 하시겠지만 이창한 강사님 강의를 듣다보면, 강조하시는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ex. 특A급, A급, 출제가능성 언급 등) 강의 수강시에 필기량이 많은 편인데, 저는 이런 뉘앙스들을 모두 표시해 중요도를 통합 및 사례집의 알파벳 색인 옆에 모두 표시했습니다. 이후, **발췌독시에 A급 발췌독 등으로 활용**하거나, 동차 시절에는 버릴 내용들을 선별할 때 이용했습니다. 기득 시절에는 암기스터디에서 중요도를 분류할 때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GS출제 쟁점들도 모두 표시했습니다. 스티커 색깔로 GS를 구분하고, 횟수를 숫자로 표시했습니다. (ex. 파란색-61회 기초GS / 노란색-62회 실전B) 회독하며, GS를 떠올려보고 생각나지 않으면 곧바로 찾아 함께 공부하여 효과가 좋다고 느꼈습니다.

-단권화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사례집 풀이에서 틀린 부분들과, GS에서 배운 내용들, 스터디에서 실수한 부분들 모두 통합에 표시하여 회독 시 함께 보았습니다. 전자책이라 충분히 숙지된 후에는 삭제하며 회독했습니다.

-사례집 및 핸드북 공부할 때, 항상 **노트북으로 목차집기만** 했습니다. 타이핑으로 세이브한 시간으로 목차 외에 키워드를 함께 현출해보고 암기상태도 확인했습니다. 현출에 실수가 잦거나 중요한 판례들은 풀현출해보기도 했습니다.

<통합 필기 예시>

-중요도 표시 / GS 출제 표시

The image shows handwritten study notes. At the top, there's a header '다. 상계행변' with a red box around it. Below it, there's a table of contents with columns for '2', '2', '1', and 'V'. The first column has '2', the second '2', the third '1', and the fourth 'V'. The text '일부청구시' is written next to 'V'. Below the table of contents, there's a section titled '[출제예상]' with a blue box containing the text '甲은 수술 후 손해배상청구 그그애으 하'. To the right of this, there's a list of cases with annotations. The cases are: (1) 1심 법원 심은 원고가, (2) 제1심 법원 중 1억 원만, and (3) 제1심 법원 중 1억 원만. The annotations include: '※ 유감주의', '<선결> 상계행변', 'L (배) 전보상한자', '④ 상계행변 상계행변', and '반야등등 부분도'.

-선결쟁점 표시

서도 포함한다”(아래*2015무423)/“자가가 2
이용하게 함이 **공평**하므로 둔 규정이
명령신청의 피신청인이 본안사건의 도
[공유권 보관 문서로서
신청인서 제출된 기록] 7 8했고 피신청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어**
《인용문서에 해당하는 이상》 제344조
해 보관하거나 갖고 있는 문서) **과도**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이 없는
불합격한 원고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1심 소송
자, “회의록 중 동 시험의 합격부를 결정한 부분, 합격자
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
N47 ② 시법상 **인도·열람문서(제2호)** “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해 그 인
법 제475조 제44조나 열람(상법 제306조 2항=주
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를
규정에 근거한 것이든 **묻지 않는다**”(대
처리상황 내지 전말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
* 228 (6A) 다만 **사법(私法)상** 청구권을 말하고,
등기부의 열람청구권(부등법 제9조) 등과

-목차 달기 / 오답 표시 (오답 또는 누락 표시에 몇 월인지 함께 표시했습니다.)

(2) **확인의 이익** (6A - 228 - 7A)

1) '법적 불안 상태'의 '현존'

서면으로 증명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2) **진부확인이 불안제거에 '가장' 유효**

[서면에 의해 증명될 법률관계
사건으로 대응 가능] ① 서면으로 증명되는 법률관계가 사
법] “합의서는 강박으로 작성된 것이
멸되었다.”(10)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
필요가 있다”(대판 1991.12.10. 91대15317. ③의 대

[서면에 의해 증명될 법률관계
에 대해 변호사 기록공인 가능] ② “**서면에 의해 증명될 법률관계**를 둘
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다.”/그러나 **진부확인의 소가 제기된 것**
진부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되
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인데, 소송요건의 판단 기준서는 사
에서 Y가 ‘계약서가 위조됐고 법률관계
하는바, 서면으로 증명될 법률관계에

-목차 달기 / 반복되는 키워드 별도 강조

[국가상대 소유권확인의 소의 이익 인정 요건]

1. 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 등록명의자 없을 것
2. 소장에 확인을 구하는 소유 명의자 특정
3.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줄 의무가 없을 것

→ 해의 다른 '결론' '제거'를
보조 법리 정제, 보충

→ 국외에서 등재
정제 보충하면 되

<선별>

[A]인피 → 심안청 이심.대상 / 원심과 다른 청구 인용시 주문

[B]기안원 → 일부판결 가부 (가) / 불복하지 않은 청구 대상 -소극

<예별>

[C]기인피 → 주위청구 인용가부-소극

<실선별>

[D]기인피 → 병합의 성질 / 주위청구 인용가부-적극

[A']인피 → 병합의 성질 / [A]

<심화사례 - 예별>

[E]기인원 → 예비적 청구 기각 - 부적법 (비판적)

[G]기인피 → 上同

[F]인피 → 예비적 청구 인용 - 적법

-별도 암기 필요한 내용들은 워드로 편집해 교재에 추가했습니다.

-특허법- <점수: 52.66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동차: 박형준T 기초 GS+(현강) / 박형준T 실전 B(온라인) / 박형준T 23 TOP 10 특강(온라인)

-기득: 박형준T 기본강의(온라인) / 박형준T 판례강의(온라인) / 박형준T 사례강의(상) (온라인)

박형준T 실전 A(온라인) / 타학원 실전 A(온라인) / 박형준 실전B(온라인)

박형준T 24 TOP 10 특강(온라인)

▪ 교재

-동차 : 2024 준특허법

-기득 : 2025 준특허법+ / 2025 준특허법 쟁점판례집 / 2025 준특허법 통합사례집 (상), (하)

【수강한 GS】

24년 12월~25년 6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특허 전화 암기스터디	박형준T 실전A	타학원 실전A		박형준T 실전B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 3~4월 : 박형준T 기초GS 플러스 / 강의 복습 (진도에 맞게 회독) / 총알 암기
- 5월 : 총알 암기 / 기본서 회독
- 6월 : 박형준T 실전GS B형 / TOP10 특강 수강
- 7월 : GS 단권화 및 복습

▪ 기득 기간

- 9월 : 준특허법 1회독
- 10월 : 박형준T 기본강의
- 11월 : 박형준 T 판례강의 (기본강의 수강 후 1회독 후 판례강의 수강했습니다)
- 12월 : 특허 전화 암기스터디 시작 (5월말까지 진행) / 판례강의 복습
- 1월 : 박형준T 사례강의(상) 수강
- 2월 : 사례강의 복습
- 3월 : 박형준T 실전GS A형
- 4월 : 타학원 실전GS A형 / 박형준T 사례집(하) 풀이 - 6월초 종료
- 5월 : 박형준T 실전GS B형
- 6월 : GS 단권화

【회독 방법】

-기본서

특허 역시 기득 기간에는 9,10월 전체 회독 후에는 전화 암기스터디 일정에 맞게 **발체독 위주**로 한 후 파이널 기간에만 전체 회독했습니다. 2회독 때에 준특허법 플러스에서 추가된 Basic Concept 공부해 보았습니다. 암기 대상을 아니지만, 답하게 이해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득 기간에는 과목을 가리지 않고 답안지에 검토 목차나 결론에서 제 생각을 많이 썼었는데, 특허의 경우에는 Basic Concept이 출처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4. 사안

(1) 이 사건 의약품의 약효 → 미동해(상등) (~가함)

(2) 그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 → PEG → 항암효과, 과산화
→ 동해(상등) '활성' = 제이(상등)

(3) 그 활성부분이 새로운 물질인지 → 위 '활성'은 기존 의약품의 활성부분과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3493)**

(4) 결론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이유로 존속기간 연장등록 불가

(GS 목차 중 암기대상 기본서 추가)

-판례집

특허 교재 중 가장 좋아했던 교재입니다. 박형준 변리사님 판례집에는 앞에 정리해주신 페이지가 있는데 이 공간에 필기를 주로 했습니다. 원문 2회독 가람 후에는 정리자료만 보아도 판례 학습이 되었습니다. 강의 복습 때 전체 1회독 후, 표시도니 변표를 기준으로 '별4만 회독', '별2,3만 회독'의 순으로 바뀌며 계속 회독했습니다. 전화 암기스터디 전에 진도에 맞게 판례집의 정리자료를 훑은 후 질문을 준비해보는

식으로도 하여 회독 횟수를 두고 보진 않았지만 **노출 횟수는 가장 많았던 교재**입니다.

5 모인출발명명 변경하여 출원한 CASE -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등록무효(특)]
문특허 | 24쪽 ★★★★★

요약/정리

▶ 무효심판 사건 - 쟁점 : 법 제23조 제1항 본문 위반

▶ 사건 경위 - 찰떡초코파이 vs 찰떡쿠키
2004년경. 원고 : 찰떡초코파이 OO식품연구소 대표
2005년경. 소외 1 : OO식품연구소 연구개발부장 → 소외 2 등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원고의 영업비밀 누설
2006년경. 피고 회사 : 찰떡쿠키 출시 + 이에 관한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2008년경. 원고 → 피고 회사 : 무효심판 청구
(※ 2011년경. 원고 → 피고 회사 : 영업비밀 침해 20억 손해배상청구 → 8.7억 인정)

▶ 피고 회사의 특허발명
제1항 (독립항) - 구성 1 + 구성 2 + 구성 3 + 구성 4
제2항, 제3항, 제5항 내지 제7항 (종속항) - 배합비, 온도, 시간 등 수치한정

▶ 특허법원의 판단 - 차이 평가

(3) 발명자 여부
1) **영업비밀 지득 여부**
2) **모인출발명명의 핵심 검토**
3) **모인출발명명의 부수적인 부분 검토**
4) 정리

Scrap II 특허발명 + 구성 4
이 구성 4는 원고의
특허발명

▶ 권리범위확정심판 사건

- 특허발명
C-이형 금부코시드(X), 또는 그의 제약항 하용되는 염, 입제(이형염제)
- 확인대상발명
다과금리물로진 포제이트(Y)
[다과금리물로진 포제이트(Y)는 C-이형 금부코시드(X)의 하위개념인 다과금리물로진(X1)의 프로드러그 예스테르임]
* 프로드러그 : 유효성분의 구성 일부가 변경된 물질로서 투여 후 체내에서 원래의 유효성분으로 분해되어 동일한 약리효과를 갖는 화합물
- 문헌범위 속 - X
 $X \neq Y$
- 권리범위 속 - O
1) 제1요건, 제2요건 - 충족 (C- 프로드러그)
2) 제3요건 - 충족 (C- 구성변경의 용이성 판단시점 → **출원 후 심판 전 공개여부 결정 가능**)
* 하위개념(X1)과 특허발명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화학식 100의 포함되는 것이 심판시 공시 → 화학식 100에서 하위개념(X1) 선택 용이 Scrap II (화학식 100 등) 등에서 용이성 판단 가능
* 해당 프로드러그 설계 방식 : 잘 설계됨 + 가장 간단한 화학구조 등 → 하위개념(X1)을 해당 프로드러그(Y)로 변경 용이 Scrap II
3) 제5요건 - 의식적 제의 문제 (C- 요건한 균질성 문제) → **원고의 주장과 달리**
한국 심사심판 등 고려 → Y 자체 보충으로 Y1 의식적 제의 단점 불가 → **의식적 제의 인정 X**
5. 결론 - 권리범위 속 O
→ **결론 : X에 Y의 구성이 포함되는 경우, Y는 X의 하위개념으로 인정된다.**

(예시)

-사례집

-사례집(상), 변리사 기출만 모은 교재입니다. 강의 수강 후 전체 범위 목차잡기를 다시 해본 후에 전체 범위 복습을 1회 더 하였습니다. 3회차부터는 **채길 내용들이 있는 문제만 다시 목차를 잡아보는 식으로 총 4회독** 했습니다.

-사례집(하), 변호사 기출 및 강사님 문제 교재입니다. 강의는 따로 수강하지 않고 4월말부터 스터디원과 함께 진도를 정해서 잡은 목차 공유하여 진도체크하는 식으로 6월초까지 진행했습니다. 전범위 회독은 하지 않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문제들만 6월말까지 복습한 후 마무리했습니다.

	54회-17년	p.273
	1-1~3 (토)(클)	p.278
	54회-2	p.284
	54회-3 (설1)	p.288
	54회-4 (전체)(*)	p.294
	55회-18년	p.301
	55회-1 (설3)(*)	p.306
	55회-2 (설2,설3)(*)	p.312
	3-2(토)(클)	p.316
	55회-4 (설1)	p.322

-마지막 복습 전 필기업 index에 다시 볼 문제들 표시해두고, * 유무로 학습 정도 표시했습니다.

-상표법- <점수: 58.66점>**【강의 및 교재】**

▪ 강의

-동차 : 한경훈T 기초GS +(현강) / 한경훈T 실전B (온라인)
 -기득 : 타학원 리마인드 이론강의, 판례강의 / 한경훈T 사례강의(온라인)
 한경훈T 실전A (온라인) / 한경훈T 실전B (온라인) / 한경훈T 최신판례특강

▪ 교재

-동차 : 데생상표법 점-기본서 5판 / 데생상표법 선-판례집 3판 / 데생상표법 피날레 - 2판
 -기득 : 데생상표법 점 - 기본서 6판 / 데생상표법 선 - 판례집 4판 / 데생상표법 면 - 사례집 4판 / 피날레 - 3판
 타학원 기본서, 판례집

【수강한 GS】

25년 1~6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상표 전화 암기스터디	한경훈T A형	-	한경훈T B형	-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3월,4월 : 한경훈T 기초GS 플러스 / 강의 복습 (진도에 맞게 회독)
 -5월 : 기본서 회독 및 피날레 단권화 작업
 -6월 : 한경훈T 실전B / 피날레 암기
 -7월 : GS단권화 및 피날레 (피날레를 동차, 기득 기간 모두 메인 암기 교재로 활용했습니다)

▪ 기득 기간

-11월 : 타학원 리마인드 이론강의
 -12월 : 타학원 판례강의
 -1월 : 상표 전화 암기스터디 시작
 -2월 : 한경훈T 사례강의
 -3월 : 한경훈T 실전GS A형 / 피날레 신판 단권화 작업
 -4월 : 피날레 회독 시작 / 사례집 오답
 -5월 : 한경훈T 최신판례 특강 / 한경훈T 실전GS B형
 -6월 : GS 단권화 및 피날레 회독
 -7월 : GS 단권화 및 최종 회독

【회독 방법】

-피날레

피날레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독 주기가 1차 상표법 수준으로 짧아져서 횡수를 세진

않았습니다. 기득 기간에는 최종 회독까지 최소 8회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동차 시절**에 제가 찾은 돌파구 중 가장 컸던 것이 피날레였습니다. 자기 책으로 만드는 과정이 다른 교재보다 난이도가 있지만, 그 단계만 넘어서면 **기본서와 판례집을 사전의 개념으로 활용하고, 피날레만** 돌리고 남은 시간을 민소에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illegible][illegible][illegible]

-파이널에 피날레만 보는 것이 목표였기에, 쟁점별 학습할 내용들은 모두 추가했습니다.

-최신판려자료

61회 대비에서 한경훈 변리사님 최신판례강의의 자료가 약 300페이지였습니다. 추가 최신판례까지 총 56개로 5월에 강의 수강 후 6월 중순까지는 강의자료로만 판례학습했습니다. 목차 옆에 GS 출제를 표시해두고 순서대로 회독하며, 전화 암기스터디 진도에 맞춰 추가학습 후 날짜 표시하며 순서회독과 발췌독 합쳐 약 4회독 했습니다. 최신판례 외에도 주요판례가 선별되어 있고 원문에 모두 목차를 달아주시고 강의에서 버릴 내용들을 선별해 주셔서 활용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상표를 가장 좋아했고, 이번 기득기간에도 공격과목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경훈 변리사님 강의가 어려운 편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득기간에 사례강의를 들으며 저도 조금 공감이 됐습니다. 동차 때, 운이 좋아 상표 점수가 괜찮게 나오고 조금 자만했었는데, 사례강의를 들으며 상표를 이렇게나 모르고 있었나 하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고통의 시간만 끝나고 나면, 파이널 기간에 상표 문제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동차, 기득 시절 모두 느꼈어서 건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점수: 57.66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동차 : 김진주T 기초 GS (현강) / 김진주T 실전 GS (현강)

-기득 : 타학원 리마인드 이론강의, 실전 GS (온라인)

▪ 교재

-동차 : 펴 디자인보호법 2차 암기용

-기득 : 타학원 기본서, 암기노트

【수강한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	-	-	-	타학원 실전GS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5월 : 김진주T 기초GS

-6월 : 김진주T 실전GS

▪ 기득 기간

-5월 : 교재 단권화 / 61회 GS 복습

-6월 : 타학원 실전GS

【공부 방법】

-투자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자 62회때 GS는 4회분만 학습했습니다. 다만, 5월에 61회 때 공부한 교재 필기들을 새 교재에 모두 옮기고, **61회 준비했던 GS들 중 판례형 위주로 선별하여 복습**을 병행했습니다.

-학습량이 필수과목들에 비해 매우 적기에, 동차 시절에는 GS에서 디보법 학습보다 답안지 연습의 측면이 컸습니다. 필수과목들은 암기조차 되지 않아 시간관리는 고사하고 채울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디보법에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답안지-**【실제 시험에서의 답안】**

답안 분량		한 줄 내 글자수	목차 간 엔터	글자 크기
민사소송법	25페이지	약 24자	-대목차 사이 엔터 ○	세로 폭의 2/3 정도
특허법	24페이지		-1쪽 단위 끊기지 않게끔	
상표법	22페이지		엔터	
디보법	20페이지			

【글씨 노하우】

- GS 채점에서 2번 중 1번 꼴로 글씨 언급이 있을 정도로 답안지가 약필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많은 글을 써본 것이 2차 시험을 준비하며 처음이었기에 약필임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동차 시절 한경훈 변리사님께서 ‘백강 고시체’ 교재를 추천해주셨는데, 사실 동차 4월에 교재만 구입하고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다가 기득 8월에서 10월동안 교재 가이드대로 매일 연습했습니다. 글씨가 이빠지진 않았지만, 속도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글씨의 수가 현저히 적어져서 약필이신 분들은 좋은 선택지라 생각합니다. 2차 준비하며 가장 아쉬웠던 것이 1차 준비하는 동안 시간이 많은 기간에 백강 고시체 교재를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사용한 펜】

-제트스트림 0.7 + 엔젤그립
 -약필이라 자연스레 펜 쇼핑이 잦았습니다. 제트스트림에서 시작해서, 에너겔 메탈포인트, 사라사, 프러스펜S 사용해보고 기득 5월부터 제트스트림 0.7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답안작성 방법】

-답안지에 관한 것은 한경훈 변리사님께서 강의 때 말씀해주시는 내용들로 규칙세웠습니다. 글씨가 약필이다 보니 와꾸를 좀 더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 목차 한 줄의 2/3 이하 (공부하면서, 이 기준에 맞지 않은 목차들은 수정했습니다)
- 목차 본문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기 (노력은 했으나, 예외는 항상 있었습니다.)
- 첫 장은 글씨 공들이기 (이 역시 약필 보안을 위해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초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풀고 초안지에 누락하기 쉬운 주제들만 적어두고 곧바로 답안 작성했습니다. 동차 때부터 한경훈 변리사님께서 추천하셔서 연습해왔고, 이번 시험에서는 상표 1번 광천김 문제를 제외하고는 답안 순서 꼬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타-**【암기 방법】**

-기득 시기 교재 암기는 모두 스터디 기준으로 했습니다. [스터디] 목차에 기재했습니다.

-기득 시기에 처음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다가, 스터디에서 암기 테스트시에 틀리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 두문자 따서 암기했습니다. 민소는 최대한 풀현출 목표로 해서, 촘촘하게 만들었고 스터디에서 두문자 공유하며 마음에 드는 두문자로 계속 변경해갔습니다.

【체력 관리/멘탈 관리】

-동차 - 운동 X

-기득

-8월~3월 : 주5회 웨이트 , 휴식날 러닝

-4월 : 주3회 웨이트, 휴식날 러닝

-5월: 주1회 웨이트, 휴식날 러닝

-6월~시험 : 운동X

-운동이 멘탈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다 생각해서, 의무적으로 운동 꾸준히 했습니다. 6월달 공부 계획을 세우고는 충격받고 운동을 시험까지 쉬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큰 편이라, 멘탈을 '관리'했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공부할 때 자책이 심한 편이라 오히려 몰아세우다가 효율이 더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2차 시험은 매주 GS에서 자책거리를 한 보따리씩 얻어왔기에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합격자 분의 합격수기에서 시험에 다가갈수록 공부시간을 늘려가신 방법을 봤었고, 이번 기득 기간에 따라했습니다. 12월까지 의도적으로(?) 공부를 적게해서, 9월에 하루 6시간 반에서 시작했고 한 달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루 공부시간을 늘려갔습니다. 합격을 하고 평가해서 객관성이 떨어지지만, 저같이 지쳐서 마음이 꺾이기 쉬운 타입에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 마지막 한달의 정리를 위해 달려가는 시험이라 생각하는데 아껴둔 정신력들을 마지막에 쏟아낼 수 있었고, 6월 마지막 주부터는 하루에 평균 1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파이널 기간에 스터디카페에서 해지기 전까지 GS단권화 목차잡기 한 후에, 건대에서 마음에 드는 자리 골라 보통 11시까지 아이패드로 암기할 내용들 보고 돌아갔습니다.

-시험 한 달 전부터 생체리듬 관리를 하다가, 시험 2일 전 수요일에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수면유도제를 먹어도 새벽 3시반까지 잠에 못 들고 결국 잠을 포기했었습니다. 당시에 멘탈이 너무 흔들리다가 누군가 큰 시험에서 각성상태 가면 잠 좀 못자도 괜찮다고 얘기한 것이 생각나서 샤워 후 목요일 저녁 9시까지 공부하고 7시간 푹 잔 후에 첫날 시험 치뤘고, 오히려 컨디션이 평소보다 더 좋았습니다. 합격하면 이 경험을 꼭 공유하고 싶었는데, 비슷한 일이 일어나실 분들께서도 영향받지 않으시고 잘 치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장소 및 루틴】

-동차 : 강남역 부근 스터디카페

-기독 : ~2월 스터디카페 / ~6월 도서관 / 6월말~시험 건대 앞 스터디카페

-집에서는 절대 공부하지 못하는 타입이라 항상 밖에서 공부했습니다. 한 장소만 있다보면 효율이 떨어진다 생각해 계속 변화를 주었습니다. 기독 때는 본가에서 공부하다가 시험 전 한달만 시험장인 건대 앞 고시원에서 생활했습니다.

-루틴

-기독 3월~6월

-오전 9시 시작 : 도서관 노트북 존 - 타이핑 목차잡기

-오후 : 도서관 교재 회독 및 암기스터디 분량 암기

-저녁 : 카페 전화 암기스터디 (평균 1시간 30분 ~2시간)

-스터디 후 : 공원 벤치 스터디 복습 및 GS 복습

-기독 파이널

-오전 8시 시작 : 스터디카페

-밤 : 건대 벤치 : 자료 암기

【스터디】

-1차부터 동차까지 쭉 혼자 공부하다가, 처음으로 스터디를 구해 12월부터 6월초까지 전화로 암기스터디 했습니다.

너무 열정적이신 분 만나서, 얼굴도 모른 채 매일같이 전화하며 함께 공부해오다가 이번에 함께 합격하여 합격자 환영회에서 처음 뵈 수 있었습니다.

<진행방식>

-민특상 교재에서 암기 분량을 나누어 구글 시트로 함께 편집하여 리스트 작성했습니다.

[N53] 344조2항의 거부사유 증명책임

[M19]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 가부

[P61] 승계인에게 '승소한 원고에게 대항할 실체법상 고유의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Q17] 부진정예비적 병합의 허부

[R65] 선정 후 선정자의 '선정당사자 진술 경정' 가부

[P45]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 또는 '여명연장으로 인한 치료비' 추가청구와 변경의 소

[E14] 대리권, 대표권 소멸통지(원칙)

민소 - 202개 / 특하-103개 / 상표-158개

-랜덤 돌린 후, 스케줄 짠 후에 저녁 시간대에 전화로 무작위로 질문 던진 후 암기 테스트했습니다.

-민소의 경우 중요도를 선별하여 별3개부터 0개로 4단계를 나눈 후 2회독부터는 중요도가 높은 쟁점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일정잡았습니다 (별3개-59개 / 별2개-69개 / 별1개-50개 / 별0개-19개).

기본순서(원본)	기본순서(편집본)	★3 ▼	★2	★1	★0
----------	-----------	------	----	----	----

-하루 로드는 민소 50프로 / 특허 30프로 / 상표 20프로로 잡았습니다. (평균 1.5시간에서 2시간 정도)

〈내용〉

-처음에는 단순 암기테스트 위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법리 숙지된 후에는 꼬리물기 질문까지 했고 주로 ‘선결쟁점’, ‘연관 쟁점 질문’, ‘그룹화’, ‘간단한 사례 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그룹화가 큰 도움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동일한 문구가 나오는 판례를 연상할 수 있는지 체크하는 식으로 질문한 후 그룹화한 사람이 있으면 두문자 식으로 만들어 공유하곤 했습니다.

-스터디 후에는 현출 실수하거나 오답이 있는 경우 교재에 표시해두고 회독할 때 복습했습니다.

【GS 단권화】

<대상>

-민소 : 61회 기초 1세트, 실전 2세트 / 62회 실전 2세트 (총 4.5세트)

-특허 : 61회 기초+ 1세트, 실전 1세트 / 62회 실전 3세트 (총 5세트)

-상표 : 61회 기초+ 1세트, 실전 1세트 / 62회 실전 2세트 (총 4세트)

<방식>

-4월말에서 5월초 사이, 중복 및 기초GS 중 다시 볼 필요가 없다 판단한 문제들 버리는 작업하니 약 1/3은 날라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경훈 변리사님께서 실전GS에서 자세히 설명해주십니다)

-분류 작업 후, 구글 시트로 정리하여 목차잡기 해보고 학습 상태에 따라 색깔로 표시한 후 그 기준으로 다음 회독 진행했습니다.

[illegible]

【휴식】

-동차 초반에 휴식없이 공부를 하다가, 한경훈 변리사님께서 강의시간에 **꼭 휴식날**을 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쉬기 시작했습니다. 수기를 쓰다보니 한경훈 변리사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들이 수험기간의 규칙이 되었던 것들이 많아 언급이 잦은 듯 합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해주셨었는데 수험생 입장에서 쓴 얘기들도 있었으나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동차 때는 일요일 GS끝나고 저녁부터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약 16시간 휴식했고, 기득 때는 일주일에 하루 통으로 휴식했습니다. 금요일을 기본으로 설정했지만, 온라인GS만 수강했었기에 변동도 잦았습니다.

-동차 때는 휴식 전날 술을 마시고, 휴식하며 유튜브를 몰아서 보곤 했습니다. 1차 때 운동을 그만두고 동차기간까지 살이 너무 많이 찌고 건강이 나빠짐을 느꼈었습니다. 기득 기간에도 휴식 전날 밤에 술을 마신 건 변함없지만, 휴식날 러닝을 꼭 했고 11월, 1월에 마라톤 대회도 나갔었습니다. 운동을 원래 해보신 분들께서는 휴식 때 운동 조금씩 하시길 권합니다.

【월비스 추천하고 싶은 강의/교재】

-민사소송법 : 통합민사소송법 암기노트 (동차 추천)

-특허법 : 박형준T 판례강의 / **준특허법 쟁점판례집**

-상표법 : 한경훈T 사례강의 / **피날레**

마치며

처음엔 군대에서 무언가 이루고 나가고 싶단 가벼운 생각에 시작했습니다. 1차 합격만을 바라보고 2차 시험에 진입하니 버거움에 후회도 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2년반이란 저에게 길었던 기간동안 어떻게 쉬는게 효율적인지 고민하며 뭘해야 행복한지 찾아보기도 하며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해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학원 커리큘럼보다 강의를 늦게 수강한 것도 많고 스스로 실패한 수험생이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운이 좋게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인의 목적이 공부는 아님에도,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나 많은 응원받으며 시험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맞선임 친구들에게 많이 고마운데, 시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제 행운이 옮겨가 좋은 사람들 많이 찾아가셔서 합격까지 도움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믿고 기다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변리사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수험 준비하며 합격수기 참고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막상 써보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자료도 버린 것들이 많아 제가 쓰면서도 글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듯 합니다.

혹시나 제 글을 보고 참고하시려는 분이 계시면, kjh5218531@postech.ac.kr 편하게 연락주시면 미흡한 부분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명	김지유	수험기간	2023.03~2025.07.
학교	서강대학교	전공	화공생명공학
키워드	기득 차석 민소고득점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 2025년 시행된 변리사시험 2차 시험에 합격한 62기 김지유입니다. 평소 수험생활을 하며 다양한 합격수기를 읽고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에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수기를 남깁니다.

1차 공부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87.5점	90점	70점

-민법-

<점수: 87.5점>

【강의 및 교재】

저는 김동진 강사님의 강의와 교재로 공부하였습니다. 1차 법과목은 여러 책을 읽기보다는 하나의 기본서와 하나의 문제집을 반복적으로 회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김동진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한 것이 1차 공부 중 가장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진 강사님은 방대하고 어려운 민법을 수험에 적합하도록 가장 쉽게 설명해주셨고, 혹여나 너무 과한 양을 공부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셨습니다.

【시기별 공부】

1~3월	4~6월	7~9월	10~12월	1~2월
-	기본강의 수강	민법공방 회독	민법공방 회독, 민 공연 문제풀이	회독, 문제풀이

저는 2023년 3월부터 1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학기와 병행하여 공부를 했고, 일주일에 이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약 1~2달간은 민법만 공부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 집중해서 진도를 빠르게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김동진 강사님의 강의를 하루에 약 3일치씩 수강했습니다. 이후 2~3시간동안 배운 내용을 회독하여 복습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4월초에 기본강의를 모두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부터 본격적인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의를 들어도 외워지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회독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종일 민법만 공부하여 회독을 진행한 결과, 첫 1회독에 약 7~8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민법 자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생겼고, 암기량이 증가하여 자연히 회독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6월 이후로는 다른 과목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 민법 공부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기간동안은 하루에 약 2~3시간동안 일정 분량을 회독하고 강사님께서 제공해주신 복습자료를 이용하여 학습 정도를 체크했습니다. 이후 민법공방연습이 출간되자마자 문제풀이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모든 문제를 풀었다가 점차 틀린 문항 위주로 범위를 줄였습니다. 3회독을 한 사이클로

하여, 3번 중 한 번이라도 틀린 문제에 형광펜을 칠한 뒤 그 부분만 반복적으로 풀었습니다. 이때 책에서 본 적 없다고 생각한 내용이나 알려도 자주 잊어버리는 문항은 따로 포스트잇에 가필하여 민법공방 책에 붙여두었습니다.

민법공방 및 민법공방연습 회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이후에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때 틀린 문제들 또한 포스트잇에 적어서 함께 회독했습니다.

【회독 방법】

민법 과목 자체의 양이 방대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강사님이 표시해 주신 밑줄 부분을 집중적으로 회독하되, 그 외의 부분은 시간이 날 때 간단히 읽어보는 정도로 대신했습니다.

민법공방 회독은 회독 범위를 점차 늘렸다가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을 민법에만 투자해도 회독에 1주일이 넘게 걸렸으나, 점차 속도가 붙어 나중에는 하루 2-3시간 회독 시 5일만에 1회독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회독과 암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눈으로 읽고 뒤에 나올 내용을 머리로 예상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민법공방연습 회독은 전술한 대로 3회독을 한 사이클로 했습니다. 얇은 판으로 정답을 가린 뒤 머릿속으로 O,X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고, 틀린 문제는 문제 번호 옆에 X표시를, 맞았으나 논거가 확실하지 않은 문제는 세모 표시를 해두고 완전히 맞은 문제에만 O표시를 했습니다. 이후 3회독 중 하나라도 X나 세모 표시가 있는 문제에 형광펜을 칠해 따로 풀었고, 그 중에서도 틀린 문제들을 점점 더 진한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중요도를 구별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4종의 형광펜을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그 문제들만 순서를 두어 풀었습니다. 회색-하늘색-초록색-붉은색 형광펜 순서대로 중요도를 높였는데, 시간이 지난 결과 회색 준위의 문제들은 이틀 이내에 회독이 가능했고, 하늘색 이상 준위의 문제는 모두 하루 안에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렵다고 생각했던 채권자취소권이나 저당권 계산문제 등은 따로 두어 1주일에 한번씩 몰아서 풀었습니다.

민법 회독은 정독에서 속독으로 빠르게 넘어갔고, 그에 따라 회독 속도 또한 빨라진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일까지 민법공방, 민법공방연습을 약 12회독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법Tip】

~ 민법 공부는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이 많고 휘발이 빠르다고 느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회독이 틀어지면 잊어버리는 부분이 생겼고, 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꿈기는 날 없이 회독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너무 많은 범위를 커버하려고 하기보다는, 중요도를 설정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달리했습니다.

-산업재산권법-

<점수: 90점>

【강의 및 교재】

~ 특허법, 상표법은 타 학원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했고, 디자인보호법은 김웅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민법과 마찬가지로 산업재산권법 모두 하나의 기본서와 하나의 문제풀이서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특허법】

~ 특허법은 타 학원 강사님의 기본강의, 조문강의, 판례강의를 수강했습니다. 5월 즈음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기존에 배우던 민법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과 형식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강의를 수강할 때는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출원 과정과 그에 대한 조치, 그리고 심판에 대한 내용까지 단어 하나하나가 낯설고 머릿속에서 뒤죽박죽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마인드맵이었습니다. 과목의 단원명을 하나의 대목차로 잡고, 그 아래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구조화했습니다. 처음엔 잘 알지 못하면서 마냥 따라

적었던 마인드맵이 내용 이해와 흐름 암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조문과 요약서가 결합된 작은 책을 구매하여 회독했습니다. 1차 특허법은 조문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적어도 이틀에 1회독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조문 내용 중 중요하다고 판단된 기간, 주체 등에 구멍을 뚫어 혼자 암기 내용을 시험해보기도 했습니다.

문제풀이는 민법과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하나의 객관식 문제풀이서를 사서 선지별로 O,X를 판단했고, 틀리거나 어렵다고 느낀 선지는 따로 표시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주 헛갈리거나 틀린 선지는 빈 종이에 따로 적어두거나 회독한 조문집 귀퉁이에 적어서 함께 외웠습니다.

【상표법】

상표법 또한 타 학원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기본강의를 수강한 뒤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반복적으로 회독했습니다.

상표법은 특허법과 꽤나 비슷하다고 느꼈지만, 조문에 대한 자잘자잘한 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메인 이 되는 33조 1항, 34조 1항 조문들은 백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외웠습니다. 또한 상표법 자체를 암기하기보다는 특허법을 기준으로 하여 차이가 되는 부분이나 상표법에만 존재하는 내용들을 중요하게 다뤄 분량을 줄였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따로 구해 풀기보다는 기출 위주로 학습했습니다. 진도별 기출문제집을 구한 뒤 선지별로 정오를 판단하였고,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문을 조금씩 바꾸어 내는 문제가 많아서, 조문별로 장난을 많이 치는 부분을 따로 모아 외웠습니다.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은 김웅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특유디자인과 같이 디자인보호법에만 존재하는 개념을 익히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타 과목과 마찬가지로 매일 같은 분량의 기본서를 회독하고자 했고, 진도별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 암기량을 늘렸습니다.

-자연과학개론- <점수: 70점>

【강의 및 교재】

물리,화학,생명과학 과목은 타 학원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했고, 지구과학 과목은 박준희 강사님의 기본강의와 교재로 공부했습니다.

【물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연과학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내에 완강할 수 있는 핵심강의를 선택하고, 기본서를 빠르게 암기하고자 했습니다. 물리 과목은 공식을 외우면 비교적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공식집을 따로 만들고, 구멍을 뚫어 혼자서 매일매일 공식 테스트를 보았습니다.

평소에 물리 문제를 잘 풀어내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가 꽤나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단원별로 일관된 풀이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단원에서 어느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매우 세세히 정해 두고, 그 안에서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화학】

화학 또한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는 핵심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문제를 모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비교적 쉬운 암기형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화학 과목은 문제 간 난이도 편차가 크고, 시간을 크게 잡아먹을 수 있는 만큼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당한 공부량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물】

고등학생 시절부터 생물 과목을 좋아했기 때문에 생물을 주력과목으로 삼았습니다. 타 학원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생물은 반드시 고득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양의 문제풀이를 진행했고, 틀리는 문제 및 선지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했습니다.

【지구과학】

지구과학은 박준희 강사님의 강의와 교재로 공부했습니다. 지구과학에 대한 베이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해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강의 수강 이후 기본서 뒤쪽에 있는 요약서를 중심으로 회독했고, 최근 15~20년간의 기출문제를 풀어 보면서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천체와 같이 계산이 필요한 단원은 비중을 낮게 다루었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암기 단원의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기타-**【시간 관리】**

1차 시험 준비 기간에는 저만의 루틴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14~15시간씩 공부를 몰아서 하기보다는, 매일 꾸준히 10시간 이상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상 시간과 식사 시간, 그리고 침대에 눕는 시간까지 모두 통일하여 저를 통제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불필요한 생각을 줄이기 위해 커피 마시는 시간, 영양제 먹는 시간까지 미리 정해두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또한 과목별로 목표한 공부시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과목을 하루에 한 번씩은 공부했고, 시험 6개월 전부터는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전부 정해서 그 안에서만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너무 부족한 과목 없이 과목별 공부 정도가 균형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체력 관리】

체력이 평소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지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점심이나 저녁 중 한 끼를 집에서 먹고 조금 쉬다가 다시 공부를 하러 나왔습니다. 또한 주 1회는 늦잠을 자서 모자란 체력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운동은 러닝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포기했습니다.

【문제풀이 방법】

1차 시기에는 전 과목 모두 동일한 문제 풀이 루틴을 가져갔습니다. OX문제집의 경우에는 문제별로, 객관식 문제집의 경우에는 선지별로 정오를 판단했습니다. 이때 손으로 적기보다는 눈으로 훑으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빠르다고 느껴져 손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틀리거나 어려웠던 문제 및 선지에 따로 표시를 하고, 이후 표시된 문제들 위주로 다시 문제를 풀며 범위를 줄여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회독 속도 및 횟수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2차 공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선택과목
64점	58.33점	60.66점	61.33점

-민사소송법- <점수: 64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저는 동차 시절 이창한 강사님의 기본강의와 사례강의를 수강했고, 그 이후에는 GS를 수강했습니다.

▪ 교재

저는 통합 기본서와 사례집으로 공부했고, 특히 사례집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수강한 GS】 (스터디 포함)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	타 학원 GS	이창한 실전A	타 학원 GS	이창한 실전B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동차 기간에는 이창한 강사님의 기본강의와 사례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진도를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두 강의 모두 전년도 강의를 수강했고, 그 결과 3월이 지나기 전에 두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후에는 혼자서 사례집을 회독하며 민사소송법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름대로의 학판검을 외워 보기도 하고, 헛갈리는 논점은 패드에 간단히 적어가면서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2차 시험을 위한 공부와 1차 시험을 위한 공부가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빈 답안지에 암기한 내용을 모두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례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하루에 60~80점분량 정도로 따로 뽑아 통암기를 진행하고 답안지에 그대로 현출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혼자 4~5월을 보내고, 6월부터 친구와 사례집에 있는 논점에 대한 학설/판례/검토를 외우는 말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논점을 알면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확실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를 읽고 어떤 논점을 적는지’, 즉 주소 설정에 대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읽고도 어느 내용을 써야 하는지 몰라 논점 이탈이 매우 잦았고, 좋은 답안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창한 강사님의 실전 GS를 수강했으나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기득 기간

동차 시험 이후 9월부터 기득 시절을 시작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학기와 병행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많은 공부량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학기 종강까지는 암기나 문제풀이보다는 사례집 회독에 집중했고, 내용에 익숙해진 뒤 속도를 높여가며 회독 횟수를 올렸습니다.

종강 이후 GS시즌 이전까지는 기출문제와 동차 시절 들은 수업의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회독량을 줄이는 대신 암기량을 올려 판례 현출이 잘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주중에는 논점 찾는 연습 및 사례집 암기를 진행했고, 주말에는 기출문제 또는 동차 시절 시험지들로 풀답안을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틀리거나 처음 본 논점은 모두 포스트잇에 적어서 사례집에 붙여 두고 함께 회독했습니다.

GS시즌에는 암기량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판단해서, 사례집을 빠르게 읽어 휘발되는 양을 줄였습니다. 매일 사례집을 일정량 회독하고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 동차 시절 문제지들의 목차를 잡으며 논점 찾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 시기부터 개정법이나 최신 판례 등을 새로이 배웠고, 따로 모아서 한 번에 암기했습니다. 다양한 GS를 풀었는데, 이때 자주 틀리거나 처음 보는 논점은 모두 포스트잇에 자세히 적어 사례집에 붙이고 함께 회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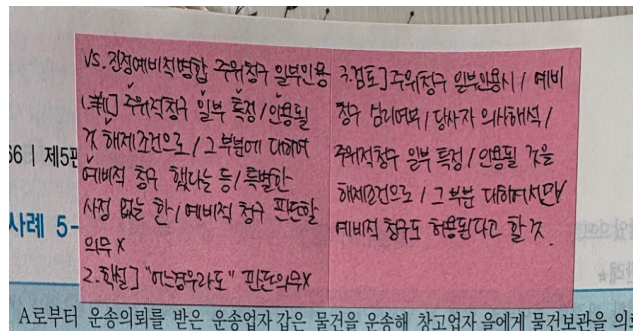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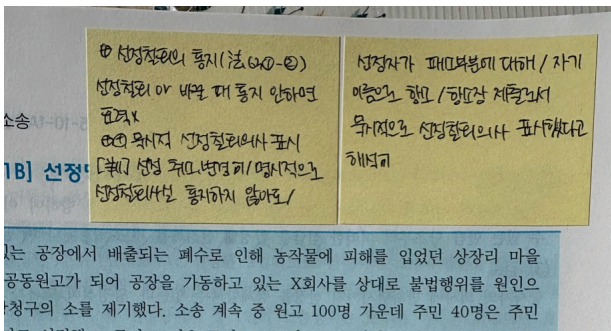
시험 전날에는 사례집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암기되었다고 판단하여, 붙여둔 포스트잇 위주로 마지막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책이 아닌 포스트잇들만 따로 모아서 가져가 읽었습니다.

【회독 방법】

저는 기본서가 아닌 통합 사례집을 집중적으로 회독했습니다. 기득 시절, 공부 초반에는 많은 내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회독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다시 기억날 때까지 하루에 약 50-100페이지만을 매우 느리게 읽고 이해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에 50페이지를 읽는 데에도 약 1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서서히 동차 시절 공부했던 내용이 기억났고, 그에 따라 회독 속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사례집 내용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부터(약 11월 즈음부터로 기억합니다.) 속독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책을 펴두고 멍하니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분마다 한 번씩 알람이 울리는 영상을 틀어두고 공부했으며, 적어도 그 시간 전에는 한 장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회독 속도에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대목차를 읽은 뒤 소목차 및 내용을 머릿속에서 예상하는 방식으로 회독과 암기를 동시에 할 수 있었습니다. 통합기와 현출에 집중한 2-3개월간을 제외하면, 2차 시험 전까지 주중에는 매일 하루에 사례집 1/2에 해당하는 양을 읽었고, 적어도 일주일에 사례집 2회독은 완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과목 특성상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논점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독 자체는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전 범위를 읽으려고 했습니다.

통합 기본서 회독은 비중을 낮추었습니다. 강사님께서 짚어 주신 밑줄 부분만 가볍게 읽어 보았고, 주에 1회독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은 어렵거나 사례집에 없는 논점을 적어 둔 것입니다.



【암기 방법】

동차 시절 가장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주소 설정을 가장 먼저 외웠습니다. 처분권주의/변로주의, 일반 석명권/지적의무 등 헛갈리기 쉬운 개념은 어느 사안에서 어느 개념이 사용되는지 표로 비교하여 정리했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기판력과 같이 다양한 논점으로 이어지는 개념은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구조화했습니다.

암기와 현출은 2-3개월 이내 집중적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일반 학판권은 눈으로 읽기-가리고 머릿속에서 떠올리기-손으로 현출하기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강사님께서 중요하다고 짚어 주신 문제는 따로 패드에 논거와 결론을 적어 두었고, 이를 반복적으로 적어 손이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이때 두문자를 적극 사용했는데, 이미 책에 있는 두문자뿐만 아니라 너무 길거나 한 번에 외워지지 않는 문구는 대부분 두문자를 따서 사례집 여백 공간에 적어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긴 호흡의 문장을 높은 정확도로 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례집에는 없으나 통합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GS시간에 기출된 논점들, 최신 판례 등은 따로 포스트잇에 가필해 두고 사례집에 붙여서 함께 외웠습니다. 이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 회독 시 포스트잇을 가리고 혼자서 내용을 읊은 뒤 다시 확인하는 방법으로 암기 강도를 높였습니다.

-특허법- <점수: 58.33점>**【강의 및 교재】**

▪ 강의

저는 박형준 강사님의 판례강의를 수강했고, 이후 GS를 수강했습니다.

▪ 교재

기본서는 타 강사님의 교재로 공부했고, 박형준 강사님의 준특허법 판례집을 이용해서 공부했습니다.

【수강한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박형준 기초GS	박형준 실전A	-	-	박형준 실전B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동차 기간에는 민사소송법 강의를 들은 이후 4월부터 2차 특허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특허법은 1차 시험에서 이미 공부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으나, 1차와는 너무나 다른 공부량과 공부 방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쫓기듯 공부했고, 판례 문구 중 강사님들이 짚어 주신 두문자들만 겨우 암기했습니다. 답안 흐름과 사안포섭 등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GS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고, 동차 시험 또한 과락으로 마쳤습니다.

▪ 기득 기간

동차 시험 이후 9월부터 기본서 회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적, 정신적으로 여유를 갖고 과목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작은 범위부터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종강 이전까지 하루에 약 100페이지 정도를 1~2시간 내에 회독하고, 주에 1회독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회독을 반복하다 보니 법의 구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내용이 익숙해졌습니다.

종강 이후에는 박형준 강사님의 판례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동차 기간동안 기본서만을 읽었고, 그에 따라 어떤 판례가 어떤 사안에서 적용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판례강의는 기득 기간 중 특허법 실력이 크게 향상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판결요지만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사안에서 어느 논점이 문제되고, 사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배우며 답안에 대답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판례는 모두 사실관계와 쟁점, 결론을 기본서에 가필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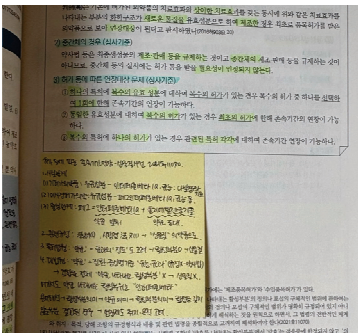
이때 박형준 강사님의 기초GS도 함께 수강했는데, A급 논점들이 큰 배점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중요 논점을 누락없이 적는 연습이 되었습니다. 이때 박형준 강사님의 답안 형식과 사안 포섭 방법을 많이 배웠고, 이와 최대한 비슷하게 적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실전GS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부했으며, 기본서에 없는 최신판례나 학계 논의, 자주 누락하는 판례 등은 전부 포스트잇에 적어 당일 외운 뒤 기본서에 붙여 두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따로 강의나 GS등을 수강하지 않고, 혼자서 자주 틀리는 논점, 최신 판례, 중요하다고 생각한 쟁점들 위주로 암기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동안 풀었던 GS의 목차를 잡고 풀답안을 다시 작성하면서 손의 감각을 유지했습니다.

[회독 방법]

특허법은 기본서-판례암기자료-총알자료 순서로 매일 회독했습니다. 기본서는 기득 초반에 이해를 위해 조금씩 회독하던 것을 제외하면 매일 전체의 절반 분량을 읽었고, 나머지 자료는 전체 분량을 1/4로 나누어 주에 1회독을 끝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서는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중요한 판례 위주로 빠르게 읽어나갔습니다. 이 때에도 회독이 진행됨에 따라 대목차를 읽은 뒤 속으로 소목차와 내용을 미리 떠올려 보는 방식으로 회독과 암기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판례집에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판례와 GS에 나온 논점 중 기본서에서 보지 못한 논점들은 모두 기본서에 적어 두었고, 이는 1회독 시 2-3번씩 반복적으로 암기해서 확실히 제 것이 되도록 했습니다. 총알자료는 기본서에 없는 내용들만 따로 하이라이트를 쳐 둔 뒤 그 부분만 회독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중요 판례를 포스트잇에 가필해 기본서에 붙여 둔 것입니다.



[암기 방법]

암기는 기본서와 판례암기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이때 두문자를 적극 활용했는데, 강사님께서 짚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호흡이 길다고 느껴진 판례들은 모두 두문자를 따 두었습니다. 또한, 논거가 여러 개인 판례나 흐름이 명확한 판례는 순서를 적어 흐름을 타서 외우려고 했습니다.

이때 판례의 판결요지 및 중요한 논거만 묶어 놓은 판례암기자료를 이용했습니다. 판례 문구의 왼쪽 여백에는 두문자를 적어 두고, 오른쪽 여백에는 판례에서 사안에 적용한 논리를 적어두었습니다. 해당 자료를 적어도 주 1회 이상 회독했고, 끊겨서 휘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읽었습니다. 이를 모두 한 번에 암기해서 시간이 지난 뒤에는 왼쪽 여백의 두문자를 읽으면 판례의 내용과 사안포섭 방법이 모두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의 자료로 꽤나 많은 암기량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효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적어 두고 암기했습니다.

판례의 이해 - 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 변경 판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후830 판결
판시 사항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안 1.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 판결 이유 2. 판례의 변형 판결 결과 3. 판례의 변형 판결 결과
판결 이유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고, 그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정된 명세서	판결 결과 1.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 판결 이유 2. 판례의 변형 판결 결과 3. 판례의 변형 판결 결과

-상표법- <점수: 60.66점>**【강의 및 교재】**

▪ 강의

저는 타 학원 강사님의 강의 및 GS를 수강했습니다.

▪ 교재

교재 또한 타 학원 강사님의 기본서와 판례집으로 공부했습니다.

【수강한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	-	타 학원 GS	타 학원 GS	-

【시기별 공부】

▪ 등차 기간

등차 기간에는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4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마음에 쫓기듯 공부했으며, 판례조차 제대로 암기하지 못했습니다.

▪ 기득 기간

특허법과 상표법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기득 초반부터 기본서를 회독했고, 속도를 높여 회독수를 올렸습니다. 이후 두문자를 따서 암기하고 기본서에 없는 내용들은 포스트잇을 활용했습니다.

GS를 들으면서, 조치 문제 시 무효사유 및 취소사유의 누락이 잦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문제 풀이 생각해야 하는 논점의 흐름을 사전에 정해 두고, 그에 따라 문제를 정형화된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회독 방법】

회독 방법 또한 특허법과 동일합니다. 분량을 정해 두고, 적어도 주에 2회독은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상표법은 유사한 법리가 다양한 사안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본서는 비교적 간단히 외운 반면 판례집 회독에 힘썼습니다. 판례집에서 각 사안마다 유사한 법리가 어떻게 달리 적용되고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지 집중해서 판례집을 읽었고, 판례마다 사안 포섭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은 따로 표시해 외우려고 했습니다.

【암기 방법】

암기 또한 요약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상표법 판례 요약자료는 각 판례 사안마다 쟁점과 판결 요지를 모아둔 형태를 이용했습니다. 판례를 타겟팅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중요한 판례는 어떤 쟁점이 문제되고 어떤 결론이 이끌어지는지를 모두 외우려고 했습니다. 또한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판례의 사안 적용과정을 모두 암기자료에 가필하여 함께 외웠습니다. 판결 요지 및 법리는 타 법과목과 마찬가지로 두문자를 따서 정확한 현출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점수: 61.33점>**【강의 및 교재】**

▪ 강의

저는 김웅 강사님의 실전GS를 수강했습니다.

▪ 교재

교재는 이준권 강사님의 지인 디자인보호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수강한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	-	-	-	김웅 실전GS

【시기별 공부】

▪ 등차 기간

시험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있는 교재 중 가장 얇은 기본서를 선택했고, 4~5월부터 회독을 시작했습니다. 기본서가 얇았기 때문에 30분만에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을 읽을 수 있었고, 회독 수를 빠르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암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위주로 편하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6월부터 김웅 강사님의 GS를 수강하며 어느 논점에서 어느 부분을 적어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 부분을 강조하여 암기했습니다.

▪ 기득 기간

기득 기간에도 4월 중순부터 회독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과목의 공부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은 간단히 기본서를 읽는 정도로만 공부했습니다. 등차 시절과 동일하게 주중에 하루 30분씩 기본서의 절반 분량을 읽었고, 암기를 하기보단 편한 마음으로 읽어 내용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이후 김웅 강사님의 실전GS를 온라인으로 수강했고, 풀답안을 작성하기보다는 간단히 목차만 잡은 뒤 목차에 해당하는 답안지 내용을 기본서에서 찾아내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외웠습니다. 이때 김웅 강사님의 중요 판례 자료가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정 판례를 타겟팅해서 문제가 나오는 과목 특성상 판례 사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는데, 가장 중요한 판례를 선별해 주셔서 집중해서 암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비유사, 침해/비침해 등의 결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판례에서 대상이 되는 디자인을 보고 바로 결론을 떠올릴 수 있도록 혼자서 퀴즈 자료를 만들어 공부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공부 방법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GS에 나온 판례와 암기자료 중 어렵게 느껴지는 판례 중심으로 회독했습니다.

【회독 방법】

디자인보호법은 회독 시 힘을 빼고 읽었습니다. 주로 피곤할 때 공부했기 때문에 가볍게 훑어보는 정도로만 회독을 했습니다. 전술한 대로 얇은 기본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많은 회독수를 가져갈 수 있었으나, 이를 통해 내용을 정확히 암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암기 방법】

암기는 김웅 강사님의 GS자료가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본서를 통해 내용 이해는 했으나 암기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GS시험지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풀답안을 작성하는 대신, 문제를 읽고 논점만 간단히 잡은 후 내용은 강사님의 답안을 보고 외웠습니다. 또한 강사님께서 제공해주신 중요 판례자료를 읽고 결론 위주로 간단히 암기했습니다.

-답안지-**【실제 시험에서의 답안】**

답안 분량		한 줄 내 글자수	목차 간 엔터	글자 크기
민사소송법	22페이지	약 25자	1.목차 사이에 엔터X	세로 폭의 1/2 정도
특허법	21페이지			
상표법	19페이지			
선택과목	16페이지			

【글씨 노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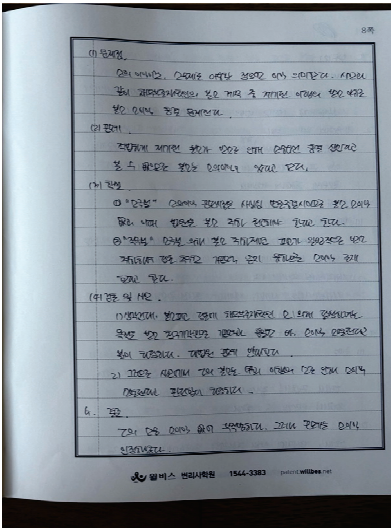
평소에 글씨가 나쁘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글씨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음을 크게 적는 것이 답안 가독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만 조금 신경썼습니다. 띄어쓰기를 크게 하는 것도 가독성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용한 펜】

동차 시절 다양한 펜을 구매해서 필속과 손의 감각을 시험해 보았는데, 제트스트림 0.7이 가장 좋았습니다. 뜯은 직후의 펜은 펜촉이 거칠어서 필속이 잘 나지 않았으므로, 시험장에서는 약 5-6페이지를 적은 후 상태의 펜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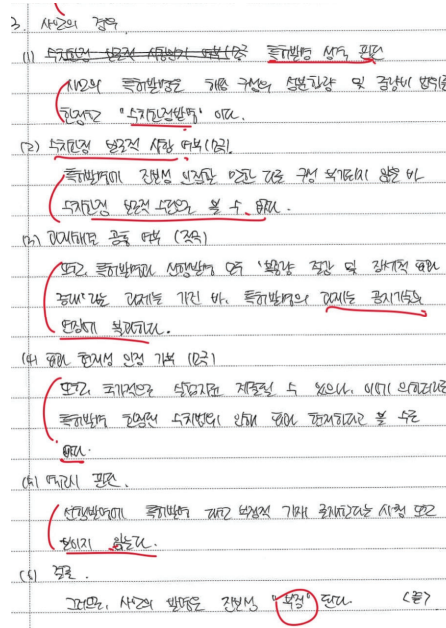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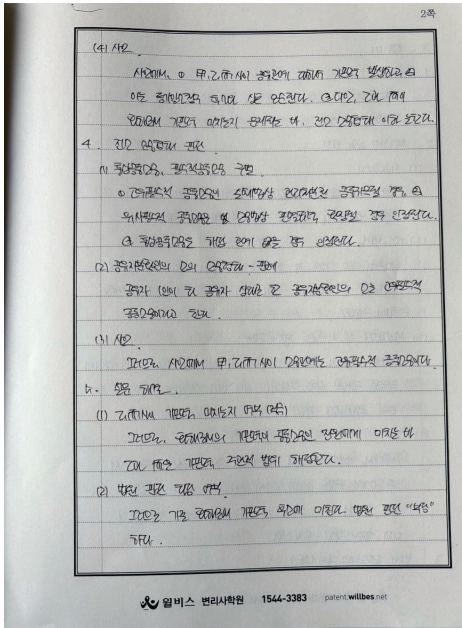
【답안작성 방법】

답안은 다른 수험생들과 크게 차이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들어쓰기를 할 때 첫 줄이 아닌 본문 전체를 동일하게 들여써서 목차와 내용의 구조가 잘 드러나도록 신경썼습니다. 또한 사안포섭 시 줄글로 늘어쓰기보다는 논점별로 분설하여 양을 늘리는 동시에 가독성을 올렸습니다. 문장 사이에도 흐름이나 종류가 있는 경우에는 라벨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사진은 민사소송법 GS시 작성한 답안입니다.

**【과목별 전략】**

과목별로는 사안포섭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논점 간 인과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논점별로 사안포섭을 적어 주고, 말미에 다음 논점을 간단히 언급하는 방식으로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특허, 상표 과목은 침해/심판 인용 등에 대한 요건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안포섭을 대목차로 잡고, 요건과 쟁점을 소목차로 잡아 사안을 적었습니다. 또한 세 과목 모두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사

안포섭에서는 판례 문구와 논리를 많이 차용해서 적어주었습니다. 아래 답안은 민사소송법과 특허법 과목에서 각각 사안포섭을 달리한 것입니다.



-기타-

【시간 관리】

수험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아침잠이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피곤하면 공부를 도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대신 다른 자투리 시간을 줄였습니다. 공부 장소인 스터디카페와 휴식을 위한 집을 철저하게 분리했고, 집에서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탓에 스터디카페에 있는 시간 자체는 줄이는 대신 그 안에서 최대한의 공부시간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많이 줄였는데, 보통 점심을 20분 이내로 먹고 저녁은 빵이나 과자 등을 들고 먹으면서 공부했습니다. 낮잠이나 산책은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꼈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피곤할 때는 그냥 일어서서 공부했습니다. 보통 9시에 스터디카페에 도착하고 오후 10시 30분에 집으로 출발했는데, 주중에는 거의 항상 12시간 이상의 순수 공부시간을 얻었습니다.

【체력/멘탈 관리】

체력 관리는 시험 직전까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주중에 쉬면 제 자신이 너무 싫어졌기 때문에, 주말에 GS가 끝나면 복습하고 바로 귀가했습니다. 운동이나 다른 것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침대에 누워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멘탈에 대하여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부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저에게 많은 것을 허용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야구를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항상 야구를 틀어놓고 공부했습니다. 시험 준비 중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불안해질 때가 많았는데,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친한 친구에게 전화로 하소연하는 식으로 버텼습니다.

【공부 장소】

주중에는 집 근처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했고, 주말에는 현장 GS를 수강했습니다. 공부 장소와 휴식 장소를 명확히 분리했기 때문에, 공부 장소를 벗어나면 책을 한 글자도 보지 않았습니다.

【스터디】

동차 기간, 약 한 달 동안 친구와 생활 스터디 및 민소 말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 시기에 상당히 나태해져 있었는데, 스터디를 통해 필요한 암기를 진행하고 생활 습관을 점검하면서 실력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기득 기간에는 따로 스터디는 진행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공부했습니다.

【휴식】

전술한 대로 주로 주말 GS이후에는 쉬었습니다. 다만 틀린 논점이나 모르는 내용은 모두 암기한 뒤에 휴식했습니다. 기득 초반에는 월요일 오전까지 늦잠을 잤으나, 공부 시간이 줄어든다고 느껴져 주중에는 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월비스에서 과목별로 추천하고 싶은 강의/교재가 있다면】

1차 과목 중에서는 김동진 강사님의 민법 기본강의를, 2차 과목 중에서는 박형준 강사님의 판례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진 강사님의 수업은 제게 1차 과목을 준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법과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당한 양으로 시험에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감을 익힐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박형준 강사님의 판례 강의는 2차 산재법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어느 판례에서 어느 문구가 어떤 논리 과정으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실제 없이 동등 떠있다고 느꼈던 판례 문구들의 뿌리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2차 민사소송법 과목의 고득점 비결】

민사소송법은 논점 간의 흐름이 좋은 답안지를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주소 설정 및 내용을 모두 암기한 뒤에는 답안지에 사례집 내용을 그대로 바르되, 더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논점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어떤 순서/어떤 흐름으로 논리를 전개할 때 더 자연스러운 답안을 만드는지 고민했던 시간이 민소 고득점을 만든 것 같습니다. 또한, 사례집이나 GS답안에 비해 사안포섭을 논점별로 세밀하게, 많은 분량으로 가져간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설 또한 타 과목에 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판례와 학설을 6:4정도의 비율로 암기했고, 학설 논거 또한 최대한 사례집과 동일하게 현출되도록 했습니다.

마치며**감사의 말**

우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2차 시험을 치르기까지 정말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항상 옆에서 무조건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여 준 부모님과 친언니, 지치고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찾아와 정서적인 교류를 주고 언제든 하소연할 수 있도록 해 준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를 응원했던 친구들, 함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합격 소식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준 대학 친구들에게, 가장 큰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맺음말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수험 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불안한 미래에, 한심한 자신에 울면서 집에 돌아가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좌절하실 때도 있고, 방황하는 시간도 분명히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시간에 무너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온 본인을 믿고, 어제보다 반걸음이라도 발전한 본인을 칭찬하며 단단히 나아가시기를 감히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이아영	수험기간	2023.08~2025.07.
학교	서강대학교	전공	물리/컴퓨터공학
키워드	기득 민소고득점 전체 27등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 62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이아영입니다.

2차 기득합이며 2023년 8월 졸업 후 약 2년 공부하였습니다.

1차는 졸업 후 시간이 너무 없다고 판단해서 남들과 좀 다른 실험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참고 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 수기들은 여럿 읽어보시고 '공통되는 부분'에 집중하여 공부방법을 차용하심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동차 (특허:39.66-과락/ 상표:55/ 민소:59.33/ 저작: 60.66// 평: 51.33/ 컷: 55.22)

기득 (특허:54.66/ 상표:56.33/ 민소:62/ 저작:59.66// 평: 57.66/ 컷: 53)

1차 공부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95점	97.5점	67.5점

-민법-

<점수: 95점>

【강의 및 교재】

기본강의 8배속 정도 날림으로 듣고 정독 한번만 하고 ox 문제집 풀었다가 너무 많이 틀려서 아무도 안할 것 같은 민법 정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정리본 꾸준히 보면서 날짜별로, 주제별로, 부정적 표현, 색을 달리하여 형광펜 칠해두니 숲이 보이는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평소 정리본 공부가 잘 맞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 이렇게 공부할것 같습니다.

【시기별 공부】

1~3월	4~6월	7~9월	10~12월	1~2월
-	-	기본강의, 정리본	40일 한세트 돌림	틀린문제, 최종정리

【회독 방법】

기본서 10일 ox 10일 기본서 10일 객관식문제집 10일을 한세트로 하여 시험 전까지 무한 반복했습니다. 앞부분 보다 뒷부분 까먹는 불상사 방지를 위해 페이지 일의자릿수 기준으로 오늘은 n0페이지, 내일은 n1페이지 목표로하여 풀었습니다. (특상디깅도 같은방법 효과 좋음)

【공부 시 주의할 점】

주체와 시기 등도 정말 중요하지만 원칙과 예외, 예외의 조건을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여 확실히 알아야 흔히 말하는 리걸 마인드를 정립할 수 있게 되고, 모르는 내용의 지문이 나오더라도 어느정도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산업재산권법- <점수: 97.5점>

【강의 및 교재】

대부분의 기본 강의를 날림으로 듣고 조문을 정말 많이 읽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3법 비교표(김영남 변리사님)를 처음에는 15일에 한번 읽다가 갈수록 횟수를 줄여가고 밑줄치다가 빈칸도 셀프로 뚫어보고 나중에는 조문 번호 및 간단 내용 (55조- 국내우주) 만 보고 나머지 항을 순서 무관히 컴퓨터에 타이핑해보면서 완벽에 가깝게 외웠습니다. 1차가 어려운 점이 첨표하나 차이 같은 걸로도 내용이 달라질수 있고 수험생으로서는 그 차이를 교수만큼 잘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결어구(그리고, 그러나, ‘,’), 육하원칙(누가 어디서 무엇을 등) 회독마다 테마를 정해서 집중해서 보고, 틀린건 누적적으로 복습했습니다.

객관식을 풀 때는 문제별로 틀린 문제를 모으기보다 선택지 별로 모호하게 판단되거나 틀린걸 모아서 양을 줄여나갔습니다.

【특허법】

기본강의 반정도 까지만 똑바로 듣고 그 이후는 6배속 정도로 날림으로 들었고, 기본서 정독은 안했습니다.

이전 시험이 시행령과 규칙 부분이 많이 나와 한 선택지라도 지우면 답 고를 확률 올라갈거라 생각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따로 정리했었는데 생각보다 시험에 나옴만해보이는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상표 디보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처음볼 때 3시간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엔 공부하다 심심할 때 몇 번 봤습니다.

【상표법】

기본강의는 듣지 않고 객관식을 풀다가 판례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기본서를 회독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생각되어서 2차 판례집을 읽었습니다. 원문은 읽지않고요 요약된 핵심의 느낌만 익힌다는 생각으로 하루 15분 읽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최종강의만 듣고 최종강의 자료만 읽었습니다. 기출 10개년만 풀었습니다.

심사기준이 꽤 나오는 것 같고, 그림책 같기도 해서 공부하기 싫을 때 읽었습니다.

【공부 시 주의할 점】

산재는 특히 조문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조문에 익숙해지는 것이 최우선인바, 조문의 회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는 오픈카톡방이 익명의 다양한 테마로 운영됩니다. 저는 밥 먹는 중에 설경/공부할경으로 오픈 카톡방을 주로 읽었는데 놀게된다고 이를 추천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디만,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않고/보지않고, 남들이 틀린 문제, 모른다고 올린 문제를 내가 아는지 확인하는 용으로 쓰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강사님들 계신 방에 있으면 좋은 자료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김영남 변리사님이 운영하는 오픈 카톡방에 있었으며, 변리사님께서 질문에 정말 기계신가.. 싶을 정도로 잘 답변해주셔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저정도는 되어야 합격하는구나 싶어서 자극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연과학개론- <점수: 67.5점>

【강의 및 교재】

과목당 10문제 씩이기도 하고 1차때 보면 안 볼 과목들이라는 생각에 세 과목 중 가장 공부 비율을 적게 가져갔습니다. 물리와 화학은 자신있는 과목이라 변리사 강의를 듣지 않았고(결과와 다름) 생물은 듣다가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 포기했고, 유일하게 박준희 강사님의 지구과학만 너무 재밌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물리】(2/10)

나름 물리학과 높은 성적 졸업이었고 기출, 모의고사도 많이틀려도 2개었는데 법과목 보고 지금까지 많이틀려도 5개다 싶어서 긴장이 확 풀려서.. 사고가 났습니다. 공부는 peet, mdeet 문제집으로 했고, 다른 변리사 문제집은 솔직히 쉬워서 그런 거였는데 빛을 못봐서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의 문제가 다 어디서 본 문제이긴 해서 peet mdeet 문제집을 사용해보는것도 추천드립니다.

【화학】(5/10)

peet mdeet 문제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변리사 학원 교재는 해설이 좋지 않아 선택했고, 너무 어려운 문제는 스킵했습니다. 해설 퀄리티가 좋아 주변의 다른 분들도 책을 빌릴 정도였습니다. 변리사 수험판의 화학 교재 해설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방향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물】(10/10)

원래 싫어하는 과목이어서 어느정도 버릴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몇 번은 기본서를 읽다가 좀 동떨어졌다/양에 비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싶어서 열지 사이언스 랜드 유튜브 동요 영상 열심히 보다가 마지막 일주일에 갑자기 불안해져서 생물 객관식 문제집 어려워보이는 단원만 풀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10/10)

박준희 강사님의 기본서와 객관식을 번갈아 가며 시험 전까지 하루 1시간씩 보았습니다.

기본서는 형광펜으로 칠해보고 검정색으로 빈칸도 뚫고 지워가며 회독했습니다.

박준희 강사님이 나름의 외우는 노하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를 또 재밌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강의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공부 시 주의할 점】

저처럼 시험장에서 법과목 잘봤다고 긴장 푸시지 말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 주력은 물리와 화학이고 가장 시간과 정성을 많이 쏟았음에도 생물과 지구과학이 점수를 많이 올려준 것처럼 몇 개를 버렸으니까 그 부분 공부는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지양하시길 권합니다.

-기타-**【시간 관리】**

7시부터 12시까지, 시험 전 한달은 7시부터 11시 점심 따로 먹지 않고 중간에 샤워+저녁 1시간 가졌고 별도 쉬는 시간은 갖지 않았는데 호흡 짧게 1시간 단위 과목을 바꾸면 길게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7시~12시 : 산재 민특상 1시간씩, 오답노트 스터디, 부족해보이는 과목 1시간

12시~5시 : 민법

6시~10시 : 물화생지 1시간씩

10시~12시: 조문공부 1시간, 부족한 과목 1시간

【체력 관리】

1차는 별도로 운동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만 평소에 수영, 헬스 등을 꾸준히 해왔었기에 체력에 큰 문제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3-4시간은 쉬었습니다.

【문제풀이 방법】

문제별이 아닌 **문제 선택지 별로 다시 볼 것을 표시**했고, 앞서 말한 것처럼 페이지 수의 1의 자릿수 기준으로 회독하여 앞부분을 보는 동안 뒷부분 까먹고, 뒷부분 보는동안 앞부분을 까먹는 상황을 방지했습니다.

ox를 확실히 알더라도 근거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 경우 모르는 것으로 보는 등 엄격하게 아는지 여부를 따졌고, 기본서를 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객관식 문제집은 해설이 자세한가 1순위로 두고 골랐습니다.

【스터디】

틀린 것을 다시 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날 틀린 오답을 상대방에게 말하며 말하는 나도 복습하고 상대도 남이 틀릴만한 양질의 문제를 접하는 취지의 스터디를 했습니다.

오답을 혼자 복습하면 집중도가 떨어졌었기 때문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2차 공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선택과목
62점	54.66점	56.33점	59.66점

-민사소송법-

<점수: 62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이창한 강사님 커리큘럼을 따랐습니다. 다만 제가 성격이 급한편이라 강의가 나오는걸 기다리기 힘든 경우에는 전년도 강의를 섞어 들었습니다.

강사님께서 1타로 오래 계셔서 그런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궁금해했던 부분은 이런거 궁금해하는 사람 있다며 귀신같이 바로 말씀해주셔서 좋았고,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

매년 좋은 이슈, 안좋은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1타 강사를 듣는편이 오랫동안 1타를 한 내공과 다수가 듣는 다른 점을 고려하면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교재

기본서- 통합 교재를 봤습니다.

사례풀이- 이창한 강사님의 사례집과 기출 핸드북을 이용했습니다.

조문집- 별도로 구비하지 않고 법전을 보았습니다. 시험장에서 조문을 빨리 찾기 위해 위치를 외운다는 의미에서 법전을 보았는데, 조문 찾으면 떨어질 확률이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차라리 부수적 설명이 써있는 강사님의 조문집을 보는 편이 더 나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수강한 GS】 (스터디 포함)

24년 1~2월	24년 3월	24년 4월	24년 5월	24년 6월
-	기본, 사례강의	기초GS, 실전A	실전B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실전A		실전B

【시기별 공부】

▪ 등차 기간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기본강의를 시작해 3월 중순까지 기본강의를 듣고, 4월 전까지 사례강의를 마쳤습니다. 3일정도를 써서 전년도 기초GS를 풀고, GS A형과 B형을 기득과 같은 시기에 들었습니다. 기본서 회독은 총 13회독, 사례집 회독은 총 8회독 했고, 결과는 59.33 받았습니다.

▪ 기득 기간

이창한 강사님 심화강의를 듣고, 기본서 회독을 매일하면서 핸드북과 사례집을 번갈아 가며 보았습니다. 각자 한번의 회독당 10일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회독 방법】

기본서 회독 방법

내용이 익숙치 않았을 때에는 숲보다 나무를 먼저 익히기 위해 패드로 통합을 읽으면서 키워드, 중요 문구들을 검은색으로 칠해버리고 회독시마다 뭐였지 떠올렸습니다. 다 안다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며 회독이 가능해 그냥 회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습니다.

내용이 어느정도 익숙해지고 난 뒤에는 숲을 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통합이 목차가 너무 잘 되어있어서 이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흔히 본문 내용에 목차별로 색을 달리하여 형광펜 칠하는 방식으로 가독성을 확보하는데 저는 목차에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본문과 형광펜 색을 맞췄습니다. 목차에 힌트가 될만한 것들(학설, 판례 등)은 화이트로 지웠고, 목차를 보고 그 아래 소목차를 떠올리고, 소목차를 보고 내용을 떠올려 교재 본문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1:32 11월 5일 수요일

< 25 목차

(2) 소권의 실효 여부

IV. 권리보호이익(특정 소에서 요구되는 소의 이익) F34

1. 이행의 소

(1) 현재이행의 소

a. 집행이 불능·곤란한 경우에도 소의 인정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소의 이익]

b. 목적실효·실효가 없는 경우 소의 부정

c. 일부청구의 경우와 소권남용

(2) 장래이행의 소(아래 VII)

2. 확인의 소

(1) 대상적격 F37

1) '권리·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할 것

2) '현재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할 것'

a.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판례] 과거의 갑사·이사 등의 지위확인 F41-1
[판례] 파면·해임·직위해제·면직 등 무효확인

b. 장래의 법률관계 확인

3) 제3자의 법률관계 확인

a. 확인의 이익 인정 요건

b. 확인이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① **저당권자가 선순위저당권자를 상대로 선순위저당권 부존재확인** ②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 ③ **저당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2) 확인의 이익 F45

< 통합 민사소송법_2024

는데 소재지가 **소송법상 신의칙(신의 제2조) 위반인 것만**도 소각할 것인데, 이는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위 판례 사안의 경우, **청구기각판결을** 할 것이다(Q&A).

IV. 권리보호이익(=권리보호필요, 특정한 종류의 소에 요구되는 소의 이익)

1. 이행의 소

(1) 현재이행의 소

F34 현재이행의 소란 원고가 **변론종결시**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다. 이행기가 도래한 청구권을 **강제집행하려면 승소확정판결을** 얻어야 하므로 판결을 얻기 위한 현재이행의 소는 **당연히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다만 아래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F35 a. **집행이 불능이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소의 이익 인정**

[사례] 甲의 L토지가 乙, 丙에게 순차매도되어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甲은 먼저 丙에게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다시 甲이 乙를 상대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이 소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i)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능이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무력, 말소등기행위로 인하여 소의 이익을 인정할지 문제되나, **판결결과는 본정의 관념적 해결절차로서 사실적인 강제집행절차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갖고 또 승소판결을 보유했던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어 장래에 집행이 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ii) 예를 들면, 순차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한 경우,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가 인용되지 않아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행이 불가"

사례집, 핸드북 회독 방법

사례집과 핸드북은 초반에는 답도 다 읽으면서 내용을 익혔지만, 3회독째 부터는 문제만 띄워놓고 목차와 키워드를 직접잡아 보고, 농친 키워드나 목차를 형광펜으로 따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회독했습니다.

펜으로 쓰면 생각보다 쓰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지루해지기 쉬워서 저는 **타이핑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거의 하나의 답안지를 키워드 위주로 온전히 쓰는데에도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아 좋았습니다.

8:13 11월 7일 금요일

< 2025 민소 사례

106/832

2-7-3C. 당사자확정과 소재지 후 소장부분 송달 전 사망 | 107

[사례 2-7-3C]

원고 甲은 2012. 1. 19. 乙을 피고로 하여 대어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소장에 표시된 乙의 주소지에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하였다. 원고가 乙의 주소를 보정했으나, 패소부재를 이유로 역시 송달되지 못하자, 1심 법원은 공시송달명령에 의해 소장부분을 2012. 3. 6.에 공시송달하고 변론기일통지서 등도 공시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끝에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고, 판결정본도 乙에게 공시송달되었다.

한편 乙은 2012. 2. 9. 사망했고, 그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乙의 자녀들인 丙1, 丙2, 丙3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丙1, 丙2, 丙3은 2012. 10. 31. 제1심판결에 대해 추후 보완항소를 했고, 2013. 1. 15. 2심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했다. 원고는 2013. 8. 29. 2심 법원에 피고의 표시를 乙에서 丙1, 丙2, 丙3으로 정정해 달라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2심 법원은 항소인용(본안판단)하여 1심판결 중 乙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상고했다. 법원은 상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15점) (제6 유사, 제9 유사, 제22 유사)

사례집의 제목은 문제를 푸는데 힌트가 될 수 있어서 지웠고, 전체 페이지 목록에서 잘 볼 수 있도록 회독수에 따라 색을 달리하여 답이나 목차를 빼먹은 경우 문제 위에 색 띠를 그어주었습니다.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 기득 때에는 **사례집(모든문제)→ 핸드북 (모든문제)→ 사례집(틀린문제만)→핸드북(틀린문제만)**의 드릴로 학습했습니다.

【암기 방법】

동차시기

두문자도 익숙하지 않은 때라 교재에 있는 두문자를 보며 풀이하는 연습을 주로 했습니다. 두문자를 모두 통합 교재 번호와 함께 정리하여 메모지에 써두고 집에 오가는 길에 내용을 떠올리며 암기했습니다.

전년도 GS를 강사님이 작두타셨다는 우스갯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적중률이 높았다고 들어서 GS를 이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꼼꼼히 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 동차 시기에는 GS보다는 사례집 덕이 컸던 것 같은데 다행히 사례집도 직접 써보는 방식으로 회독과 암기를 병행했던 터라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득시기

두문자는 모두 외운 상태였고, 목차만 보고 내용을 떠올리는 백지복습을 하는 방식으로 암기했습니다. 백지복습이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 생각이 들었고, 먼저 합격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통합 **‘기본서’의 목차를 그대로** 바르는 것이 점수가 잘나온다는 이야기가 많았기에 사례집에 기본서 목차를 추가해서 암기하려했습니다.

【조문 암기】

Quizlet 앱에 들어가면 법 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서 민사소송법 조문 카드를 많이 만들어두셨습니다. 주말에 30분정도는 투자해서 민사소송법 조문을 외웠습니다. 동차 때는 내용이 급해서 조문을 잘 작성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기계적 암기덕에 기득 때는 조문을 꼼꼼히 쓸 수 있었습니다.

-특허법-

〈점수: 54.66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박형준 변리사님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 교재

기본서, 판례집, 사례집 모두 박형준 변리사님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수강한 GS】

24년 1~2월	24년 3월	24년 4월	24년 5월	25년 6월
	기초GS +, GS A		GS B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GS A		GS B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대체적으로 기득이랑 붙어서 이겨야하는데 공부량이 1년치가 차이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기초GS플러스가 유명해서 들으러 갔다가 강남까지 오가는게 힘들어서 인강으로 바꾸고, 먼저 나아가겠다며 GS A형도 병행하는 등 깊이를 찔지 않고 보로드하게 나아만 가다가 20p쓰고 과락(39.66)을 맞았습니다.

▪ 기득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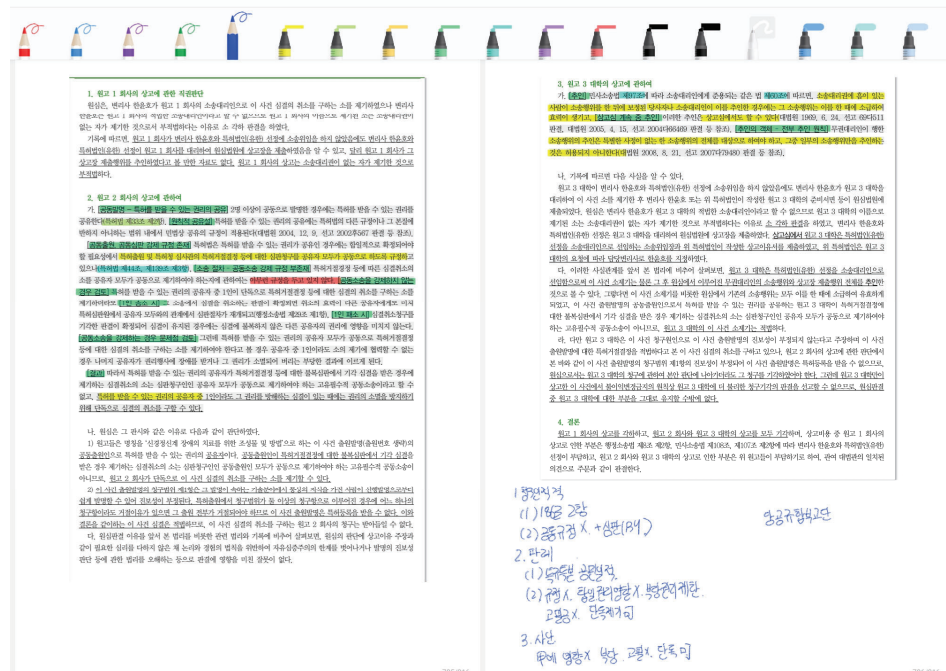
준특허 교재가 좋아서 강의 없이도 혼자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강의를 열심히 듣지 않은 것이 동차 패인이라 생각하고, 기득용 기본강의와 판례, 사례강의를 들었습니다.

기득용 기본강의도 좋지만 판례 사례 강의가 각각 사안포섭 방법과 목차를 잡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례를 쪼개서 논리 흐름대로 1->2->3의 방식으로 설명해주시는데 이를 그대로 사안포섭 목차에 따르면 되겠다는 생각에 판례마다 알려주신 내용대로 사안포섭 목차를 적어두고 암기했습니다.

주요일 화 수 목 금 토 일

특히 판례집 2판



판례집 회독시에는 동일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목차를 잡고 어떤 키워드를 살릴것인지 미리 암기했습니다.

【회독 방법】

기본서의 두문자를 모두 뽑아 **두문자 정리본**을 만들고, 목차도 함께 정리하여 준특허 미니보다 더 정리된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문자를 떠올리는데에 그치다가 **목차 준위를 올려가며 대목차만 보고 중, 소목차 및 관련 두문자를 모두 떠올릴 수 있도록 훈련**했습니다.

판례집은 사례마다 나오는 판례가 대동소이했습니다. 다만 같은 진보성 판례라도 사후고찰 언급 여부의 차이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사후고찰을 언급한 판례를 립스틱, 냉장고, 등으로 판례 키워드로 외워버렸습니다. 정리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 한 사례에 어떤 판례를 써야 할지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사례집은 소설문 별로 목차를 잘못 잡은 것을 표시해가며 회독했습니다. 목차 연습용으로만 이용했고, 회독하다보니 목차가 외워져서 회독의 의미가 떨어졌기에 기본서와 판례집에 비해 많은 회독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서, 판례집 매일 1시간정도, 판례집 회독하다 지겨울때쯤 판례집 대신 사례집을 회독했습니다.

【암기 방법】

기본서의 두문자 정리본을 핸드폰에 옮겨 시간 날때마다 보며 암기했습니다.

판례집은 암기보다 스토리를 이해하려 하면 자연스럽게 현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GS의 목차 중 좋은것이나/ 같은 판례의 여러 버전 문제들 중 목차를 참고할 만한 것이 있으면 판례집에 추가로 기재하여 판례집 회독시에 함께 암기하려했습니다.

【사안 포섭 방법】

상표도 사안포섭이 중요하지만 상표는 사안포섭을 뭉텅이? 느낌으로 한다면 **특허는 사안을 단계별로 쪼개서** 1이고, 2이므로 3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안포섭을 소목차를 활용해 분설하여 논리구조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선배 변리사님께서 저에게 **사안포섭은 나누는만큼 점수가 들어간다** 하셨는데 맞는말 같습니다.

저도 시험에서 **학설은 당연히 날리고, 판례를 대법원 판례라 할지라도 조금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안포섭 분설에 신경썼습니다.**

-상표법-

〈점수: 56.33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타 학원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들었습니다.

한경훈 변리사님의 판례강의 수강했습니다.(기득)

사례강의는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한경훈 변리사님의 GS가 좀 더 학술적이고 심도있는 느낌이 들고, 사안포섭 디테일도 좋아서 동차, 기득 모두 한경훈 변리사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 교재

타 학원 강사님의 기본서를 보았습니다.

기득때는 한경훈 변리사님의 판례집, 사례집을 보았습니다.

【수강한 GS】

24년 1~2월	24년 3월	24년 4월	24년 5월	24년 6월
	GS A			GS B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GS A		GS B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타학원 강사님 교재가 1,2차 연계가 되어있어서 별 고민없이 기본강의를 선택했습니다.

GS는 답안지 스타일이 한경훈 변리사님과 더 잘 맞는 것 같아 한경훈 변리사님의 GS를 수강했습니다.

55점 맞았습니다.

▪ 기득 기간

동차때는 한경훈 변리사님의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기득 때는 깊이있는 통찰로 다가와 판례 강의를 수강하고, 판례 집과 사례집을 보았습니다.

판례집은 기존에 제가 보던 타 학원 강사님의 판례집에 없는 부분을 찾아 추가적으로 메모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했고, 사례집은 특허와 같이 시간채고 풀기보다 **변리사님이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셨는지(특히 사안포섭) 보는데 중점**을 두어 보았습니다.

【회독 방법】

마찬가지로 대목차를 보고 중,소목차를 떠올리고, 두문자를 나열해보는 백지복습 방식으로 회독했습니다. 판례의 중요한 부분에는 검정색으로 빈칸을 뚫어놓고 떠올리는 방식도 사용했습니다.

판례집은 특허와 달리 단계적 논리의 흐름보다는 **판례가 어떤 점을 문제상고 포섭했는지를** 보고 문제에 이 부분의 내용이 나왔을 때 잘 캐치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하며 회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례집의 한경훈 변리사님의 사안포섭 답안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암기 방법】

세 과목 중에 두문자를 제일 많이 활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상표적 사용 판례와 같은 경우 상태주의경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동차때는 그것만 외우다가 실제 거래계에서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후렴 문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기득은 **판례를 두문자 위주에서 벗어나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상태주의경 실거식 등의 저만의 두문자를 붙여 길게 외워갔습니다.

【사안포섭 방법】

문제에서 주어진 재료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판례를 한번 더 그대로 적는다는 느낌으로 사안포섭을 하면 고득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상표가 전에 비해 높은 점수를 주면서 천하제일 상표대회로 바꾸자는 말도 나오는 만큼 판례집 회독을 열심히 해서 판례와 가깝게 키워드 살려가며 사안포섭하시고, 여유가 되시거나, 중요한 판례가 있다면 원심에서 문제된 부분도 함께 찍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점수: 59.66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타 학원 강사님의 기본 강의를 들었습니다.

▪ 교재

타 학원 강사님의 기본서를 사용했습니다.

【수강한 GS】

24년 1~2월	24년 3월	24년 4월	24년 5월	24년 6월
-	-	-	기초 GS	-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	-	-	-	-

【시기별 공부】

▪ 등차 기간

기본강의 수강, 기본서를 하루 30분 정도 회독했습니다.

기초GS부터 기출문제가 있길래 실전은 안 들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기초GS 1번문제 풀다가 조문 베끼기 같아서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풀답안은 1회차 1번문제 하나 빼고 쓴 적이 없습니다.

60점 획득했습니다.

▪ 기득 기간

기본서 하루 30분 회독했습니다.

최신판례를 알기위해 실전 GS의 최신 판례 나오는 부분만 골라서 수강했습니다.

풀답안은 한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회독 방법】

양이 적고, 기본서 비중의 대부분도 조문이라 그냥 이런 내용이 이 째 있구나 정도만 느끼면서 회독했습니다.

판례 문구도 대부분 조문의 차용이라 이 조문을 베꼈구나만 알면서 회독했습니다.

【암기 방법】

법전을 보면 된다는 생각에 별도 암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전을 시험전 달에 한번 보면서 조문의 위치정도는 숙지하려했습니다.

-답안지-**【실제 시험에서의 답안】**

답안 분량		한 줄 내 글자수	목차 간 엔터	글자 크기
민사소송법	20페이지	약 23자	설문 사이에만 빈 줄을 두었습니다.	세로폭의 9/10 정도
특허법	20페이지			
상표법	20페이지			
선택과목	20페이지			

【글씨 노하우】

글씨는 평균 정도로 주변에서 자음을 크게 써라, 밑부분을 줄에 붙여라 등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나하나 신경쓰는게 너무 스트레스라서 그냥 쓰던대로 썼습니다. 가독성 점수는 gs에서 항상 4 나왔습니다.

주변에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깔끔해보이긴만 하면 글씨체 자체는 크게 상관 없는 것 같기도합니다.

【사용한 펜】

제트스트림 펜대에 에너겔 0.7 썼습니다.

【답안작성 방법】

동차 때는 그럴 여력이 없어 목차 잡기 없이 바로 답안을 작성했는데, 기득 때는 **설문을 모두 읽고, 목차를 잡았습니다.**

시간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겹치는 논점 확인 가능하고, 강약조절도 가능하다는 다양한 장점이 있으니 목차 먼저 잡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흔히들 하는 얘기로 조문-> 판례 -> 사안인데 동차때에 비해 조문을 충실히 썼습니다. 특히 이번 상표 1번과 같은 경우 119조 1항 2호 판례를 쓸 공간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판례보다 조문을 쓰고, 판례는 사안에 녹여서 사안포섭을 충실히** 하니 그렇게 점수에 손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8p만 넘으면 고득점에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16-17도 내용이 좋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목별 전략】

특허: 판례의 논리적 단계의 흐름에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상표: 실제 사례에서 판례가 문제삼은 부분을 저도 그대로 문제 삼으려했습니다.

민소: 통합의 목차를 그대로 바를 생각으로 암기했습니다.

저작: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만 하고 그 외 다른 과목 공부에 방해받지 않게 하려했습니다.

【GS등수 연관성】

GS A 특, 상은 한자릿수 등수에서 40%대 까지 나와서 평균 18% 정도에 있었고, 민소는 평균 10%대, GS B형은 모두 평균 10%대에 있었으며 변동폭도 적었습니다. 다만 제 주변을 보면 극상위권이나 극하위권이면 조금 안심/위기감 느낄 여지가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시험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타-

【시간 관리】

7시부터 10시까지, 시험 전 일주일은 7시부터 9시 반, 쉬는 시간은 저녁 1시간 30분(운동 30분 추가) 외 없었습니다.

7시~10시 : gs 스터디

10시~12시: 특허 기본서

12시~ 1시: 특허 판례집 가끔 물리면 사례집

1시~ 2시 : 상표 기본서 -> 판례집 1회독씩 번갈아가며

2시~ 4시: 민소 기본서 (빈칸뚫기, 목차보고 내용떠올리기 등등 다양하게 회독)

5시 반~8시: 민소 기본서

8시~10시: 민소 사례집-> 핸드북 1회독씩 번갈아가며

【체력/멘탈 관리】

기득 비시즌에는 하루 1시간정도 헬스를 하거나 주말에 수영 가거나 하며 체력을 길렀습니다.

스터디를 하면서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다들 힘들다는 생각에 혼자 힘든것보다 좀 덜 힘들 수 있었습니다.

【공부 장소】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스터디】

아침 7시에 2시간 딱 시작하는 gs 스터디를 했습니다. 아침에 잠 깨기도 좋고 생활습관도 잡혀서 추천합니다. 2시간 gs 쓰고 1시간 답 확인, 돌려보기를 3명이서 진행했습니다.

스터디원의 지적도 정말 좋고, 공부 동무도 되어서 좋았습니다.

【휴식】

동차: 공부량에 스트레스 받을 틈도 없었고 1차 합격뽕이 있기도해서 마찬가지로 일주일 3~4시간 쉰 것 같습니다.

기득: 비시즌에는 동차후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에 12월까지 주말 하루는 쉬었습니다. 그 뒤로는 일주일에 6시간 쉬었습니다.

【월비스에서 과목별로 추천하고 싶은 강의/교재가 있다면】

특허법- 박형준 변리사님 판례와 판례집이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정말 많이 높여주니 추천합니다.

상표법- 한경훈 변리사님 GS 강의와 사례집을 보며 사안 포섭하는 디테일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이창한 강사님 기본 강의와 심화강의는 보충자료로 도식화도 잘 되어 있고, 수강생들이 궁금해 할만한 것들, 어려워하는 것들을 잘 알고 설명해주시므로 양도 많고 어려운 과목 시작을 이창한 강사님 강의로 잘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2차 민사소송법 과목의 고득점 비결】

동차 때보다 조문을 충실하게 썼으며, **통합 '기본서'의 목차를 그대로 바른 것이** 고득점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결론 목차를 꼭 따로 두었고, 사안포섭은 3-4줄 정도, 결론 별도로 3줄 정도로 하였습니다.

1번 3번 문항보다 2번 4번 문항에서 고득점을 했는데 남들과 달랐을 법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2-(1) 적법성을 다루는 것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신거에 더해 수계신청한 법원이 맞는 지(통합 파란박스 사례와 동일 목차) 등의 적법성과 관련해 문제될 수 있는 부수적인 것들도 적었는데 거기서 점수가 들어간 것 같은 것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통합 목차를 그대로 써서 다양한 점을 다루고 들어간 것 뿐이라 기타 다른 고득점 비결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수적인 논점(논해질수 있으나 문제 자체에서 결론에 영향은 없는 논점)을 적을 경우에는 3줄 정도로 적어 점수가 1점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되게 했습니다.

기타 다른 논점들은 너무 길게 쓰면 다양한 논점을 다루지 못할 것 같아 한 목차당 4줄 정도, 학, 판, 검의 경우 각각 점수가 확실히 들어갈 것 같은 경우에만 길게 썼습니다.

판례의 경우에는 **무슨 사건에서 법원은 뭐를 이유로 어떻게 판단하였다는의 프레임**으로 어떤 사건에서 문제되었는지를 꼭 써주었습니다.

마치며

수험기간 내내 미래 불확실성, 끊임없는 진도 압박 등에 지치고, 오가는 길의 신호등 빨간 불이 주는 찰나의 휴식에 감사하며 진짜 이게 사람 사는건가 싶었는데, 돌아보니 그렇게 하는게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지금 힘드신 만큼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응원해주신 부모님과 남동생, 친척분들께 결과로 보답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저보다 절 더 믿어주고 한결같이 옆에 있어준 남자친구에게도 수험기간 덕분에 웃으며 보낼 수 있었다고 전하고 싶고,

할 수 있다 응원해주시고, 답안지 정말 많이 봐주신 학교 선배 변리사님들과 함께 공부하느라 고생한 분들께 모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성명	최혁중	수험기간	2022.08~2025.07.(+군대)
학교	고려대학교	전공	지구환경과학과/ 전기전자공학부(이중전공)
키워드	삼시 민소1등 전체 3등 기득 0.22점 탈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62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최혁중입니다. 공부를 할 때 여러 합격 수기를 읽으며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제가 직접 합격 수기를 쓰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짧지 않았던 수험 생활을 거치며 배우고 느낀 점을 차분히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민사소송법 공부 방법을 중심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이 글이 수험생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차 공부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석차
초시	92.5점	85점	65점	61등 / 3,312명
삼시	95점	90점	75점	84등 / 3,451명

-민법-

<점수: 95점>

【강의 및 교재】

강의: 김동진 입문강의, 기본강의, 최신판례 특강

교재: 김동진 민법공방, 민법공방연습

【공부 방법】

민법을 처음 배울 때는 법리와 용어가 모두 낯설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 강의를 들으며 용어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입문 강의와 기본 강의의 진도에 맞춰 기본서를 병행해 읽었고, 분량이 많아 강의를 모두 들은 뒤 처음부터 다시 회독하면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당일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일주일 전 배웠던 파트의 기본서를 다시 읽으며 복습했습니다.

이후 강의를 완강하고 기본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1회독은 ‘훑는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읽어 전체 흐름만 파악했고, 2회독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읽으면서 세부 내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회독할 때는 억지로 암기하려 하기보다 반복 회독을 통해 자연스럽게 암기되도록 했습니다.

3회독부터는 민법공방연습을 같이 풀었습니다. 기본서와 문제집의 진도는 약3일의 간격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소멸시효’에 대해 기본서를 읽었다면, 3일 뒤에 같은 주제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습 효과가 있고, 머릿속에서 휘발된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험 전까지 민법공방과 민법공방연습을 계속 회독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최신 판례 강의를 수강하고, 연도별 기출문제와 학원 모의고사도 풀었습니다. 민법은 최신 판례 문제가 항상 출제되므로, 최신 판례 강의는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차 시험에서는 민법의 비중이 가장 크므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지겹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기본서와 문제집을 꾸준히 반복해서 보는 것이 민법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재산권법- <점수: 90점>

【강의 및 교재】

- (1) 특허법
 - 1) 강의: 기본강의
 - 2) 교재: A 학원 기본서, 요약서, 기출문제집, 조문집
- (2) 상표법
 - 1) 강의: 기본강의
 - 2) 교재: B 학원 기본서, 요약서, 기출문제집, 조문집
- (3) 디자인보호법
 - 1) 강의: 김웅 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 최종정리강의
 - 2) 교재 : 김웅 WK 디자인보호법 조문핵심, 기출문제집

【공부방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며 개념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용어와 법리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습니다. 강의를 모두 수강한 뒤에는 기본서를 읽어 전반적인 틀을 잡았고, 기본서로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요약서를 반복 회독하며 암기했습니다.

2차 시험과 달리 1차 시험은 객관식이므로, 문제를 풀 때 모든 선지를 정확히 이해하기보다는 정답을 가려낼 수 있을 만큼의 기준을 세워 공부했습니다.

특히 1차 산업재산권법에서는 조문 암기가 핵심입니다. 저는 조문을 읽을 때 주체(특허청장·심판장 등), 기간(예: 30일, 3개월), 재량/기속(‘할 수 있다’/‘해야 한다’) 등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를 빠짐없이 암기했습니다.

-자연과학개론- <점수: 75점>

【강의 및 교재】

- (1) 물리
 - 1) 강의: 수강 안함
 - 2) 교재 : C 학원 기본서, 문제집, 기출문제
- (2) 화학
 - 1) 강의: A 학원 기본강의, 문제풀이강의
 - 2) 교재: A 학원 기본서, 문제집, 기출문제
- (3) 생물
 - 1) 강의: A 학원 기본강의, C 학원 기본강의
 - 2) 교재: A 학원 기본서, C 학원 요약서, 기출문제
- (4) 지구과학
 - 1) 강의: 수강 안함
 - 2) 교재: A 학원 기본서, 문제집, 기출문제

【공부 방법】

자연과학은 해마다 출제 경향이 달라, 모든 과목을 폭넓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때도 있고 한 과목 정도를 과감히 포기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때도 있어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60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물리·지구과학·생물은 전부 맞히고 화학은 절반만 맞히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화학 중 제가 어렵다고 느낀 단원(예: 산-염기, 유기화학)은 아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물리·II, 지구과학·II를 모두 공부했고, 대학에서도 일반물리학·일반지구과학을 수강해 기본 베이스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강의는 수강하지 않고 문제집을 풀며 공부했습니다.

화학은 고등학교 때부터 어려워하던 과목이어서 기본 강의를 들으며 개념을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반복해 풀면서 시험에서 쉬운 문제는 반드시 맞히자는 마음가짐으로 대비했습니다.

생물은 문제집보다 기본서·요약서를 중심으로, 법 과목 공부하듯 회독을 많이 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단원 위주로 최대한 암기하고,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 회독 빈도를 낮췄습니다.

자연과학은 개인별 강점과 선호 과목이 달라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차 시험의 과목별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선택과 집중으로 자연과학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고 민법에 더 투자하는 편이 득점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공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선택과목	석차
동차	-	-	-	-	-
기득	63점	49.66점	52.33점	100점	0.22점 탈
삼시	68.33점	53.33점	60.33점	99.66점	3등 / 1,116명

-민사소송법- <점수: 68.33점>

민사소송법

1문항	57
2문항	44
3문항	56
4문항	48

【강의 및 교재】

- (1) 강의: 이창한 기본강의, 사례강의, 심화강의
- (2) 교재: 이창한 통합 민사소송법, 사례 민사소송법

【수강한 GS】 (스터디 포함)

이창한 기초, 실전A, 실전B / B학원 실전A, 실전B

【공부방법 서설】

민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할 때,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민법과 내용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전혀 달라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법은 실체법이고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게다가 객관식과 서술형은 공부 방법이 전혀 달라서, 동차생들이 2차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창한 강사님의 기본 강의를 들으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완강을 목표로 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특히 이공계 학생에게 생소한 분야라, 강의를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해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완강한 뒤 기본서를 천천히 읽으며 스스로 이해를 다져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본서를 3회독하고 나면 기판력, 참가승계, 인낙 등 용어가 익숙해지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 학문인지 감이 옵니다. 이 시점부터는 사례 강의를 병행하며 문제를 읽고 목차를 잡는 연습을 했습니다. 개념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례 강의를 듣는 것이 맞는지 고민도 되었지만, 사례를 통해 기본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시험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기본서를 회독할 때 앞뒤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2차 시험에서는 문제를 읽고 논점을 추출하고 논리적인 목차를 구성한 다음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는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내용을 전부 이해하고 사례집을 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사례강의를 수강하면서 깨지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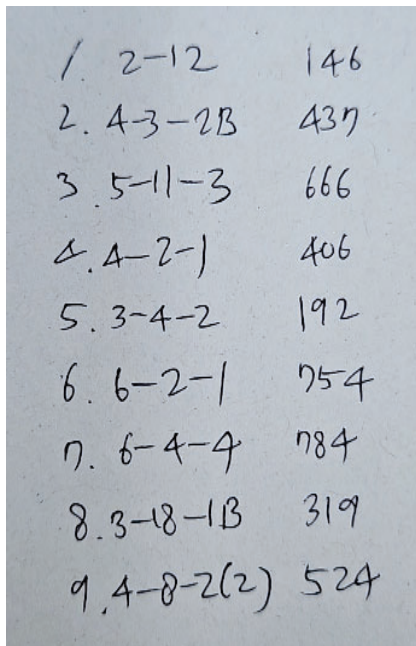
【기본적인 공부 루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시기별 공부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기본서로 이해 후 암기를 하고, 사례집으로 그 내용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기본서 암기에 보내고 사례집을 통해서 ‘목차 잡기’ 연습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기본서는 수험 기간 내내 매일 회독했고, 사례집은 같은 책을 30회 이상 풀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례집 활용】 ★★★

사례집을 푸는 목적은 문제를 읽고 논점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례집을 여러 번 풀다 보면 문제의 첫 줄만 읽어도 논점이 떠오르거나, 책의 위치(예: 앞쪽이면 관할·당사자 확정, 뒤쪽이면 소의 병합·재심 등)로 대략 추측하게 되거나, 문제 번호 옆 제목(예: “5-10-A 선정당사자”) 때문에 논점 스포를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터디원과 문제만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순서를 섞은 뒤, 하루치 분량의 문제집을 만들어 서로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집 마지막 장에는 다음 사진과 같이 문제 번호와 페이지를 함께 적어주었습니다.



하루치 문제집 풀면서 직접 목차를 잡은 다음, 책과 비교하여 논점이 누락되었거나 결론이 틀렸다면 별도로 표시하고 나중에 다시 풀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논점 추출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꾸준히 문제를 풀게 되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암기의 정도】

저는 통합에 실린 대부분의 내용을 외웠고, 판례나 학설을 암기할 때도 키워드뿐만 아니라 조사까지 그대로 암기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판례를 많이 접하시므로 구어체보다는 판례 원문을 그대로 적는 편이 더 읽기 쉽다고 판단해 원문을 그대로 암기했습니다.

다만 주변 스터디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처럼 과도하게 세부 표현까지 외우지 않고도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암기하더라도 합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직전 회독】★★

시험 직전에 통합 전 범위를 1회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일주일 전에 시험 전날 읽을 부분만 따로 정해 표시해 두었습니다. GS에 출제된 내용, A급 논점, 개인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본 내용 등을 중심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1일차 시험을 보고 나서 그 표시한 부분만 빠르게 읽었고 읽으면서 시험 당일에 볼 부분도 다시 표시해 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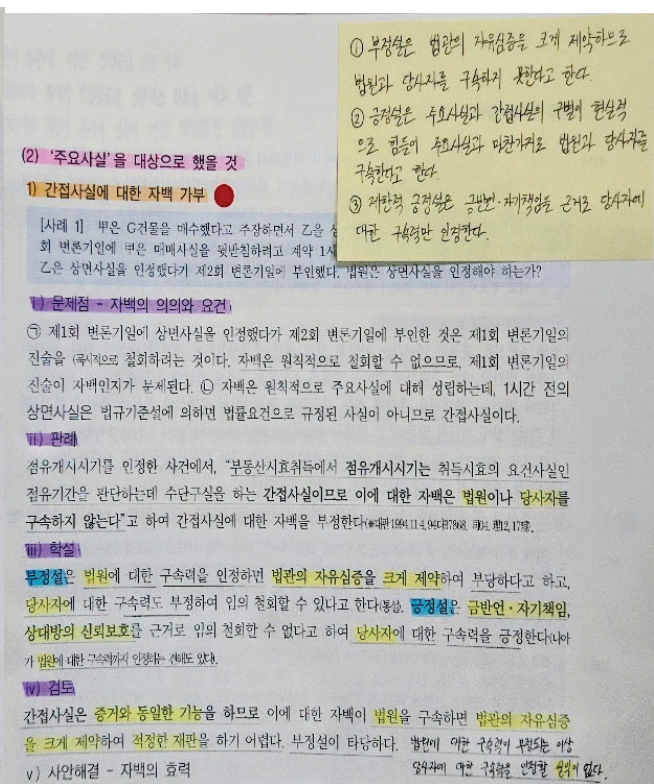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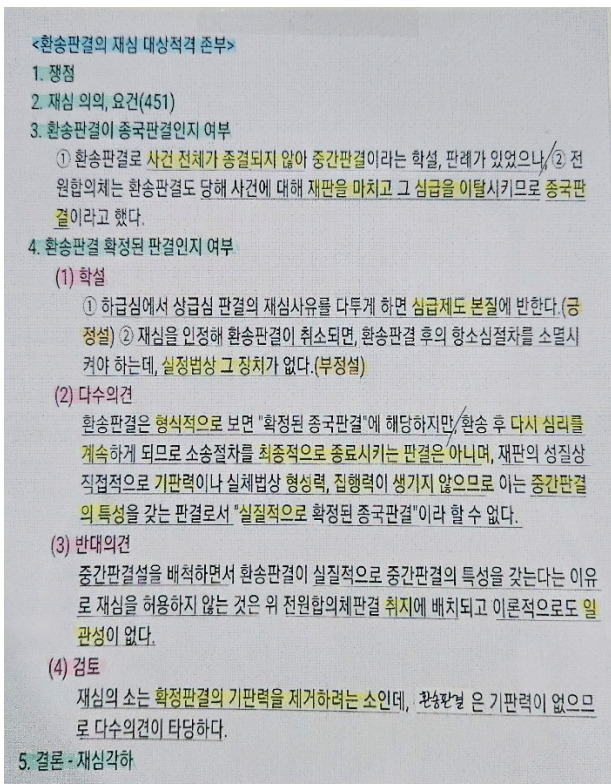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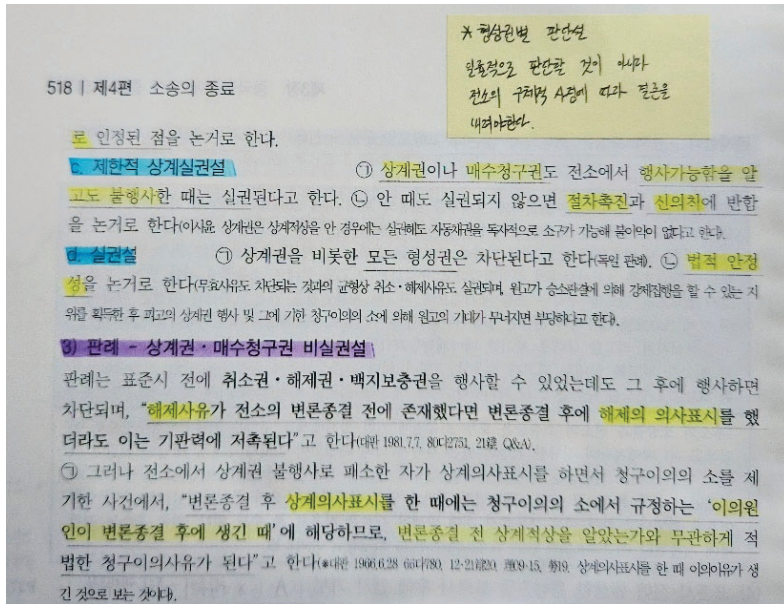
- ☑ F41-1~2 @ (과거 법률관계확인)
- ☑ F44 @ @ (유치권부존재확인)
- ☑ F47~50A
- ☐ F51 @ (제3자 권리 부존재확인)
- ☑ F54 @ @ (자당권말소+채무부존재확인)
- ☑ F73
- ☑ G13
- ☑ G23 @ @
- ☑ H15 @ @ (보정명령 항고가부)
- ☑ H18 @ @ (각하명령성립 후 보정 가부)
- ☑ H36~38 @ @
- ☑ H44
- ☑ H45
- ☑ H46
- ☐ H49-1 @ (대위소송, 추심소송, 인수승계 시효중단)
- ☑ H93-1 @ (채무자의 소 취하 후 대위소송 적격회복)
- ☐ I11-1 @ (추심소송 기판력 다른 채권자)
- ☑ J31-2 @ (연대지급청구에 개별지급판결)
- ☑ J33 @ (건물철거청구·대금지급상환 건물인도청구 포함)
- ☑ J34~35
- ☑ J36 @ (원시지급청구에 정지급판결 가부)
- ☑ J43 @ (응소행위 시효중단)
- ☑ J56
- ☑ J62
- ☐ J90 @ (지적의무 소송요건)
- ☐ J95-3~7 @ (지적의무 예시들)
- ☑ K84

【고득점 비결】★★★★★**(1) GS 활용**

많은 분들이 GS에서 출제된 논점을 기본서에 스티커로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스티커를 붙였지만, 'GS에 나왔으니 중요하니 다시 보자'가 아니라 오히려 GS에 나오지 않은 논점을 확인하기 위해 붙였습니다.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당해 연도 학원 GS에 나온 논점은 제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모든 GS가 종강한 뒤, A+ 논점 중 GS에 출제되지 않은 논점들은 판례 원문을 찾아 읽고, 교수 저서·주석서·논문 등을 통해 기본서에 없는 학설이나 그 근거를 보완해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GS에 출제된 논점이라도 제가 보기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같은 방식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형성권 실권효' 문제에는 전원열 교수님의 '형성권별 판단설'을 추가로 기재했고, 처분권주의(건매청) 문제에서도 학설의 근거를 보강해 적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추가 득점을 위한 보완 전략일 뿐이므로, 평소에는 기본서와 사례집 위주로 공부하고 교수 저서·논문 등을 과도하게 찾아보느라 시간을 소비하는 일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강약 조절

기득 때는 암기를 열심히 했고, 그렇게 외운 내용을 답안지에 쓰지 않으면 아깝다는 생각에 필속을 높여 관련 내용을 모두 적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논점별로 점수가 계산되는GS에서는 늘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은GS처럼 채점되지 않는다는 것을 삼시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삼시 때는 같은 논점이라도 배점에 따라 분량을 어떻게 조절할지 미리 고민했습니다. GS에서 늘15점으로 다루던 논점이 실제 시험에서는10점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 이때 분량 조절에 실패하면 다음 문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열심히 외운 내용이라도 욕심을 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간략히만 적거나 과감히 생략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 시험 1-1 문제에서 처분권주의와 적극적 석명이 함께 출제되었는데, 두 논점의 학·판·검을 모두 쓰면10점 분량(2페이지)을 무조건 초과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주 논점인 처분권주의는 자세히, 부 논점인 적극적 석명은 학설을 요약하고 타깃 판례만 기재해 분량을 조절했습니다. 처분권주의를 주 논점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문제에서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검토하시오.”가 아니라 “법원은甲의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라고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허법- <점수: 53.33점>**【강의 및 교재】**

- (1) 강의: 박형준 기본강의, 사례강의, 판례강의/ A학원 최종정리강의
- (2) 교재: 박형준 준특허mini, 사례집, 판례집/ A학원 최종정리자료

【수강한 GS】

박형준 실전A, B / A학원 실전A

【공부방법(기득)】

저의 특허법 공부 방식은 다른 합격자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강의를 들으며 1차 때 어렵듯이 알던 개념을 보다 정확히 이해했고, 판례 강의로는 해당 판례가 설치된 배경과 판사님의 사안 해결 논리를 익혔으며, 사례 강의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습니다.

판례집과 사례집은 GS 비시즌(3월 이전)에 미리 공부하며 GS 시즌에 다시 볼 부분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GS 시즌(3월 이후)에는 표시한 부분만 복습했고,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GS를 통해 실전 문제풀이 연습을 했습니다.

GS를 풀 때는 특허와 상표 과목에 한해 오답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자주 놓치는 논점이나 '트리거' 문구 등 실제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GS를 풀 당일 바로 복습하며 정리했고, 식사 시간이나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틈틈이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상표법- <점수: 60.33점>**【강의 및 교재】**

- (1) 강의: B학원 기본강의
- (2) 교재: B학원 기본서, 판례집, 사례집/ A학원 판례요약서

【수강한 GS】

한경훈 실전A, B(기득기간) / A 학원 실전A, 실전

【공부 방법】

상표법은 특허법과 유사하지만, 특허법보다 판례 중심 학습의 비중이 더 큽니다. 저는 기본서는 암기할 때만 활용하고, 주로 판례집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때 '이런 상표가 나오면 이 판례를 쓰자'에서 그치지 않고 판사님의 사안 포섭을 따라가며 실제 답안에서 어떻게 사안 포섭을 해야 하는지 연습했습니다. 상표는 사안 포섭도 판례처럼 틀을 암기해 두는 것이 방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판례처럼 조사까지 동일하게 외우긴 어렵더라도, 판례가 제시한 요건을 실제 사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는 암기해 두면 시험장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완성도 높은 사안 포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요부 결정 기준' 판례에서 언급된 '주장비상식결품거'의 요소를 어떻게 판단하면서 요부를 결정하는지 판단과정을 암기를 했습니다.

또한 상표는 이른바 '답안지학'의 적용 비중이 가장 큰 과목이라고 느꼈습니다. '답안지학'은 수험계에서 변리사2차의 '다섯 번째 과목'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목차 구성, 사안 포섭 방법, 판례 라벨링, 들어쓰기, 사안과 결론의 분리 제시 등 고득점에 필요한 요소를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에 더 자세히 쓰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기득과 삼시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러한 '답안지학'을 얼마나 체화했느냐였습니다. 상표 공부를 할 때는 다른 과목보다 답안지학을 신경 쓰면서 어떤 방식으로 답안을 써야 고득점을 받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답안지학-

【답안지 기본 목차】

<문제 - 1>

I. 설문(1)-1)

1.쟁점

2. A 논점

(1) 문제점

(2) 학설 - 학설을 작성하고 괄호에 학설 명칭 기재

①~~~~~ (긍정설)

②~~~~~ (부정설)

(3) 判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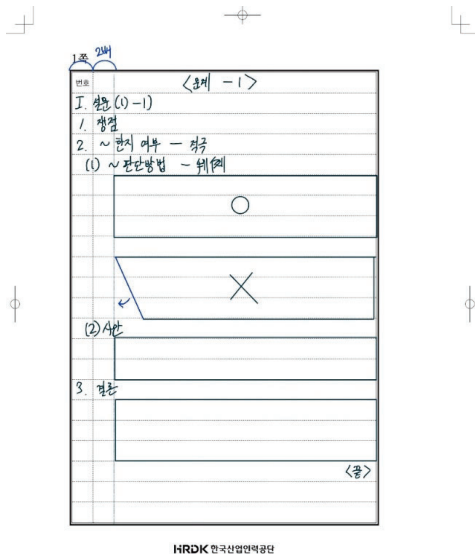
(4) 검토

(5) 사안

3. 결론

【답안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1) 들여쓰기 : 목차와 본문을 들여쓰기로 명확히 구분해, 교수님께서 목차만 보셔도 어떤 내용을 썼는지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답안지를 작성할 때 항상 목차는 들여쓰지 않고, 내용은 맨 왼쪽 세로선 칸만큼 들여썼습니다.



(2) 적극/ 소극(특허, 상표 한정) : “~한지 여부” 목차 옆에 적극/ 소극을 써주는 것이 채점할 때 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써주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쓰지 않았고 특허랑 상표만 써주었습니다.

(3) 줄바꿈: 기득때는 사안포섭을 할 때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바로 옆에 붙여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삼시때 글씨가 안 좋은 사람이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도 그냥 붙여서 쓰면 내용의 반전이 있음에도 채점자가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답안지를 크게 크게 써도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사안포섭을 할 때 내용의 반전이 있거나 반전까지는 아니어도 줄을 바꿔쓰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줄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에서 청구항 해석 방법에 대한 사안포섭을 할 때, 아래와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1) 기득

①권리범위 판단에 있어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A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다만~하다는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으면 a로 제한해석할 수 있다. ③따라서 권리범위에 속한다.

2) 삼시

①권리범위 판단에 있어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A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다만~하다는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으면 a로 제한해석할 수 있다.

③따라서 권리범위에 속한다.

(4) 법조문 숫자만 기재: 법조문을 기재할 때 ‘제1조’, ‘1조’, ‘§1’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숫자만 기재하는 것이 가장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글씨가 예쁘다면 ‘조’를 같이 써주는 것이 좋겠지만 저처럼 악필이신 분들은 괄호를 활용해서 숫자만 기재하는 것이 채점할 때 법조문을 썼구나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쓸 때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①)”고 작성하여 괄호 사이에 여백을 두어 숫자가 강조되도록 했습니다.

【고득점을 위한 방법】

(1) 판례 라벨링(특허, 상표 한정) : 기득 때까지만 해도 판례를 쓸 때 목차에 ‘判例’만 적었습니다. 판례만 쓰면 득점할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목차에 어떤 판례인지까지 쓰면 시간이 더 들고 불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틀렸고 특허·상표의 경우에는 어떤 판례인지 정확히 밝혀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긴 판례는 문장마다 담긴 취지가 달라, 이를 문장 단위로 나누어 목차에 표시하면 ‘어떤 내용의 판례를 썼는지’를 교수님이 목차만 보고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더라도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기득 때는 다섯 글자라도 아끼려고 ‘판단 방법-判例’만 적었지만, 삼시 때는 ‘부정한 목적 판단 방법-判例’처럼 구체적으로 라벨링해 어떤 판례를 쓰는지 명확히 밝혔습니다.

1. 34조1항13호 해당여부 - 적극

(1) 34조1항13호 의의, 취지, 요건

(2) A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

1) 부정한 목적 판단방법 - 判例

2) 사안

(3) 소결

(2) 마무리는 결론이라는 목차: “사안 포섭”과 “결론”에 각각 배점이 들어간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문제의 마무리 는 위에서 사안포섭을 했더라도 ‘결론’ 목차를 따로 두어 최종 답을 적었습니다. 심지어 단문 문제도 결론을 적어주었습니다.

(3) 목차를 구체적으로 작성: ‘판례 라벨링’과 같은 맥락으로 목차를 작성할 때 문제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를 포함시켜서 목차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백화점식 답안이 아닌 문제를 해결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 유사여부-적극’가 아닌 ‘A상표와B상표의 유사여부-적극’으로 작성했습니다.

(4) 법조문 필수: 법조문은 답안에 정확히 작성했을 때 교수님께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세 분의 교수님이 채점하시면 답안 내용의 경우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달라서 득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법조문의 경우 명확히 적어 두었다면(채점 기준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세 분 모두 일관되게 점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큼니다.

(5) 사안포섭시 사실관계 적용: 사안포섭을 할 때 문제에서 제시된 금액, 주체(갑, 을 병 등), 날짜, 등록상표A, B, 제시된 상표의 특징(GLIATAMIN 등) 등을 답안지에 현출해주면서 문제를 풀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용한 펜, 스톱워치】

제트스트림 펜대+ 엔젤그립+ 사라사0.7 / 드레텍 스탱워치T-606

-기타-

【시험 꿀팁】

1. 시간 관리: 평소GS를 풀 때 “1시간짜리 시험을 연속 두 번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2번까지 풀었을 때1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연습했습니다. 36분/24분 규칙은GS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실제 시험에서도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문제 풀이 순서 변경: 시험장에서 ‘짱돌’ 같은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오면 시간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평소GS에서도 그런 문제가 보이면5점당 한 페이지로 계산해 답안지를 비워 두고 다음 문제를 먼저 풀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민소 3-3을 읽고 논점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2페이지를 비워 두고4-1부터 풀었고, 다 풀 뒤에3-3을 해결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뒤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 남은 시간을 오로지 당황스러운 문제 해결에 쓸 수 있어 안정감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기득 때와 삼시 때의 차이점】 ★★★★★

1. 답안지학(전술)

2. 스티커를 활용한 추가학습(전술)

3. 분량조절(=욕심 버리기) : ‘5점당1페이지’ 원칙을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려면 주 논점과 부 논점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 논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부 논점은 짧게만 언급해야 합니다. 아는 내용을 모두 적는 사람보다 주 논점과 부 논점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배점에 따라 부 논점을 생략하거나 줄처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기득 때는 남들보다 추가 점수를 받겠다는 욕심에 관련 내용을 모두 적었지만, 삼시 때는 출제 의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알고 있어도 쓰지 않고 주 논점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4. 사소한 법조문도 암기: 법조문의 중요성은 앞서 언급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외워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민법 조문도 자주 쓰이는 것은 암기했고, 민사소송법의 경우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조문까지도 암기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4-1의 ‘변론 종결 뒤 승계인’ 판단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례에 ‘민법 제451조’를 함께 언급했고, 4-2에서는 항소 기간 도과로 항소 각하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법 제413조’를 적었습니다. 이런 조문들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아니더라도, 답안에 함께 언급해 두면 전반적인 인상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시간】

평균적으로 하루10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수험 초기에는 열정이 앞서12시간 이상 공부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하루10시간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하루는 저녁 식사 전까지만 공부하고,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체력/멘탈 관리】

운동은 따로 안 했고, 가끔 허리가 아플 때 자기 전에 폼롤러로 스트레칭만 했습니다. 수험 생활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더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수험 생활이 길어지며 우울한 날이 종종 있었고, 그럴 때마다 스터디원들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공부 장소】

학교 안에 도서관이 여러 개 있어서 기분에 따라 장소를 바꿔 가며 공부했습니다.

【스터디】

출책 스터디, 도서관 탈주 방지 스터디, 쓰기 스터디, 삼시 정보 공유 스터디, 민소 문제풀이 스터디를 했습니다.

【월비스에서 과목별로 추천하고 싶은 강의/교재가 있다면】

이창한 강사님의 기본 강의와 통합기본서를 추천합니다. 이창한 강사님의 강의력이 좋으셔서 법을 처음 접하는 이공계 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수업 시간에 중요한 내용을 자주 반복해 주셔서 강의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암기까지 이어졌습니다.

통합기본서는 다른 강사님들의 교재보다 두꺼워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회독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읽어 금방 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집과 기본서의 연계가 잘되어 있어 공부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며

마지막으로, 긴 수험 생활 동안 제 곁을 지켜 준 가족들과 많은 친구들, 선후배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분 한 분 성함을 언급하며 인사드리면 좋겠지만, 너무 많아 여기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겠습니다.

지칠 때마다 묵묵히 응원해 주신 부모님과 누나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의 수험생활을 함께해 준 모든 스터디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곁에서 함께 공부하며 존재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 방향을 잡지 못해 헤맬 때마다 따뜻한 조언과 격려로 이끌어 주신 이창한 강사님, 박형준 변리사님, 한경훈 변리사님, 그 밖의 많은 강사님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큰 도움을 주신 김민동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의 합격은 제 노력만의 결과가 아니라, 함께 걸어 준 모든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더해진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성장하는 변리사가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jo__ong으로DM 주시거나 steve1771@korea.ac.kr로 메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